GMR

Global Market Report 14-020
2014.6.20

남아공 대선과 산업 · 경제 분석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시사점

-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로의 전환기 남아공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요 약

Ⅰ. 남아공 대선 결과 분석 / 1

1 1. 대선결과와 남아공 정국 변화
3 2. 대선결과의 의의
4 3. 주마 대통령 집권 2기의 기대와 평가

Ⅱ. 남아공 산업 변화 분석 / 8

5 1. 산업 구조 변화
7 2. 산업별 현황
14 3. 고용시장 현황
19 4. 중소기업 현황
21 5. 에너지 소비

Ⅲ. 남아공 경제 변화 분석 / 23

23 1. 경제 동향
32 2. 무역 구조

Ⅳ. 주마 대통령 집권 2기의 개혁 과제 및 주요 정책 방향 / 39

39 1. 신정부의 개혁 과제
41 2.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Ⅴ. 한국의 남아공 진출 시사점 / 44

44 1. 남아공과의 교역 현황
48 2. 주마 대통령 집권 2기의 남아공 전망
50 3. 우리기업 진출 대응 방안

요 약

□ 남아공 대선 결과

지난 5월 치러진 남아공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의 승리로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 ANC는 총 62.15% 득표율을 기록하여 22.23%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한 DA(Demogratic Alliance)와 군소정당에 비해 절대 우위를 보였으나, ANC는 지난 1999년 이래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며 차기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 남아공 산업 변화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기

신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실업률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해소를 정했으며, 남아공을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공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실업사태 및 사회 빈부격차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증가로 볼 수 있다. 이는 남아공 공교육의 부실로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인력을 배출하지 못해 '고용시장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이 커지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과거 풍부한 광물자원과 건실한 농업환경을 기반으로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초부터 - 특히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후 - 금융업, 유통업, 관광업, 통신업,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남아공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등장하고, 2013년에는 금융·부동산·기업서비스 업종이 전체 GDP의 21%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업종이 급부상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은 지난 10년 동안 기술혁신을 통한 노동비용·생산비용 절감, 무역자유화, 규모의 경제 등 글로벌 트랜드가 반영되어 자본집약적인 구조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자 및 숙련노동자 부족, 생산비용 증가, 강성노조의 잦은 파업과 폭력행위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인 중소기업도 금융지원 부족, 역량 부족, 사회인프라 미비로 성장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남아공 경제 변화

남아공 경제는 규모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경상수지, 무역수지, 가계저축률이 지난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전보다 악화되었다. 특히 광물자원 등 원자재 수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 생산품 수출은 감소되고, 최대 교역국인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변동성 증폭 및 중국과의 교역의존도 심화로 수출구조가 취약해 지고 있다. 전체 수입은 남아공 국민들 가운데 소비문화 확산, 고부가가치품 수입 증가로 크게 증가해 왔다.

□ 주마 대통령 집권 2기의 남아공 전망

상기와 같은 대내외적인 위험요소로 인해 IMF는 지난 4월 남아공의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기존 전망치 2.8%에서 2.3%로 낮추었으며, S&P는 지난 6월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강등했다.

남아공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발전,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신재생에너지, 특별경제구역(SEZ) 조성, 인프라 투자 확대, 혁신(innovation) 및 과학기술 개발, 제조업 지원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마 대통령 집권 2기는 남아공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 고급인력 배출 증가, 효율성 증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실업률, 공공교육 질적 저하, 젊은층 내 비숙련 노동인력 증가, 자원집약적 산업 중심 경제구조, 사회 불평등 심화, 주거비 상승, 영업환경 악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남아공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전환, 부가가치 상승,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내수시장 확대 등의 정책 성공여부가 관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①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남아공 산업별 변화에 대응

통신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남아공 정부가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 공정과정의 혁신,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조를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바, 관련 부분의 수출 및 투자진출 전망이 높다. 또한 남아공 정부가 에너지원 다변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 증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녹색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효율 설비·기기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의 수출활로를 적극 개척해야 할 것이다.

② 아프리카 역내 유통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남아공

남아공에 있는 대형 유통망기업 5개사(Shoprite, Steinhoff 등)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 유통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 대형유통망 기업을 통하여 아프리카 역내 전체에 공급하는 전략적 진출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 '산업협력',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우회 진출 지원

남아공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 녹색경제 정책, 혁신정책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 전수, 정부간 협력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남아공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도 우리기업의 진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Ⅰ 남아공 대선 결과 분석

1. 대선결과와 남아공 정국 변화

□ 제이콥 주마 대통령 재집권 성공

○ 2014년 5월 7일 치러진 남아공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의 승리로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

* 남아공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남아공 총선에서 ANC가 승리하여, 총선결과에 따라 주마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

- 금번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400석), 주의원 선거(9개주 430석)가 동시 진행

- 전체 투표율은 73.43%로 전체 선거인 등록인구는 25,381,293명으로 이 중 18,654,457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

[주요 정당 득표율 및 의석수]

	2014년		2009년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ANC	62.15	249	65.90	264
DA	22.23	89	16.66	67
EFF	6.35	25	-	-
IFP	2.40	10	4.55	18
NFP	1.57	6	-	-
UDM	1.00	4	0.85	4
VFP	0.90	4	0.83	4
COPE	0.67	3	7.42	30
ACDP	0.57	3	0.81	3
AIC	0.53	3	-	-
Agang	0.28	2	-	-
PAC	0.21	1	0.27	1
APC	0.17	1	0.20	1

○ 집권 여당 ANC는 2009년 총선보다 약 3.7%의 득표율이 하락함에 따라 하원에서 15석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절대 우위를 확인

○ 신생정당인 EFF(Economic Freedom Fighters)는 6%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신생정당 중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주의원 선거에서도 림포포(EFF 대표의 고향)주 외에도 노스웨스트에서 DA(Democratic Alliance)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제1야당에 등극

○ 2009년 총선에서 전국 평균 7%이상의 고른 득표율을 기록하여 제3당으로 활동한 COPE(Congress of the People)는 선거 직전 다수의 소속 의원들이 ANC로 이탈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은 급격히 하락함.

□ 남아공 정국 변화

○ EFF, 제 3당의 위치 확보

- 제이콥 주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고 탈당한 ANC 청년동맹 위원장 출신 줄리어스 말레마가 이끄는 급진 좌파 신당인 EFF당이 6%의 득표에 성공하여 제3당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ANC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말레마는 주마 대통령이 광산 국유화 등 급진적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반기를 들었다가 제명되었으며, 광산 및 은행의 국유화, 백인 소유 토지의 무상몰수 등 대중영합 급진적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흑인 빈민층과 청년 실업자의 지지를 얻고 있음.

○ 흑인 재무장관 취임

- 남아공 재무장관으로 은흔들라 네네 전 재무부 부장관이 임명되었으며 흑인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회・경제적 변혁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 마누엘, 고단 등 전・현직 재무장관의 경제정책과 리더십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바, 후임자의 정책 방향이 경제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2. 대선결과의 의의

□ 야당 DA, 백인 정당 이미지 탈피

○ 백인정당이 뿌리인 제1야당 DA는 2014년 총선에서 22.23%의 득표율을 얻어 2009년 16.6%에서 6%를 더 득표하고, 큰 폭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율이 상승함.

- 이는 인구의 80%가 흑인인 남아공에서 백인정당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DA가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나, 득표율은 하우텡, 웨스턴케이프에 편중되어 전국적 정당이 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냄.

□ 집권여당 ANC, 차기 총선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 인식

○ 20년간 집권해온 ANC는 정권을 연장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총 62.15% 득표율을 기록하여 지난 1999년 이래 최저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2019년 차기 선거에서 지지율이 60% 이하로 하락되거나 정권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낌.

○ ANC가 확보한 8개 州 주지사 중 하우텡, 노스웨스트, 이스턴케이프 등 3명의 주지사가 교체되었고, 나머지는 유임되었으며 DA도 웨스턴케이프 현주지사가 주지사직을 연임함.

[신임 주지사 명단]

주	주지사	소속당
Eastern Cape	Phumulo Masualle	ANC
Free State	Ace Magashule	ANC
Gauteng	David Makhura	ANC
Kwazulu-Natal	Senzo Mchunu	ANC
Limpopo	Stanley Mathabatha	ANC
Mpumalanga	David Mabuza	ANC
North West	Supra Mahumapelo	ANC
Northern Cape	Sylvia Lucas	ANC
Western Cape	Hellen Zille	DA

3. 주마 대통령 집권 2기의 기대와 평가

□ 신정부 출범에 대한 남아공 국내 반응

○ 남아공대학 정치학과 코체 교수는 지난 4월 주남아공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남아공 총선 전망 초청세미나 ‘ 발표에서 ANC 지지만이 애국이라고 믿었던 흑인사회의 통념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와 같은 현상으로 남아공노총(COSATU)내 금속노조(NUMSA)*의 ANC 지지철회 선언, EFF/국민회의(COPE)등 ANC 탈당세력의 독자정당 설립 등을 지적함.

* 금속노조(NUMSA)는 남아공공산당(SACP)와 함께 과거 백인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ANC 정권과 삼각동맹 관계를 형성해 왔음

- 한편 코체 교수는 남아공 정세 및 정부정책이 외부에서는 불안정해 보이거나 위기상황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ANC가 안정된 헌법질서와 거시경제 정책으로 안정적 국가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이집트와 튀니지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신정부 출범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반응

○ S&P, Fitch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남아공 총선 자체는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남아공노총(COSATU), 남아공공산당(SACP) 등이 국가개발계획(NDP: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제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선거 결과에 따른 남아공 정부의 태도 변화 및 광산업계의 장기간 파업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S&P는 지난 6월 둘째주에 남아공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강등. 강등 사유는 백금 광산의 장기파업과 GDP 성장 전망이 부정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밝힘. 그러나 남아공 정부는 S&P의 이같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피력하고 있음.

Ⅱ 남아공 산업 변화 분석

1. 산업 구조 변화

□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전환기 속 산업구조 변화

○ 남아공은 과거 풍부한 광물자원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환경을 기반으로 1차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였으나, 1990년대 초부터 - 특히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후 - 금융업, 유통업, 관광업, 통신업,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남아공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음.

○ 남아공 정부가 2012년 발표한 국가개발계획(NDP)과 남아공 과학기술부가 2008년 발표한 ‘지식기반경제를 향한 혁신(Innovation Towards a Knowledge -Based Economy) 10개년 계획(2008-2018)’ 보고서, 그리고 최근 무역산업부가 발표한 산업개발정책의 핵심도 남아공을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임.

- 동 보고서는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을 통한 사업성장,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지식인프라 구축, R&D 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기술인력 양성, 기술교류·기술이전 등을 통해 남아공 정부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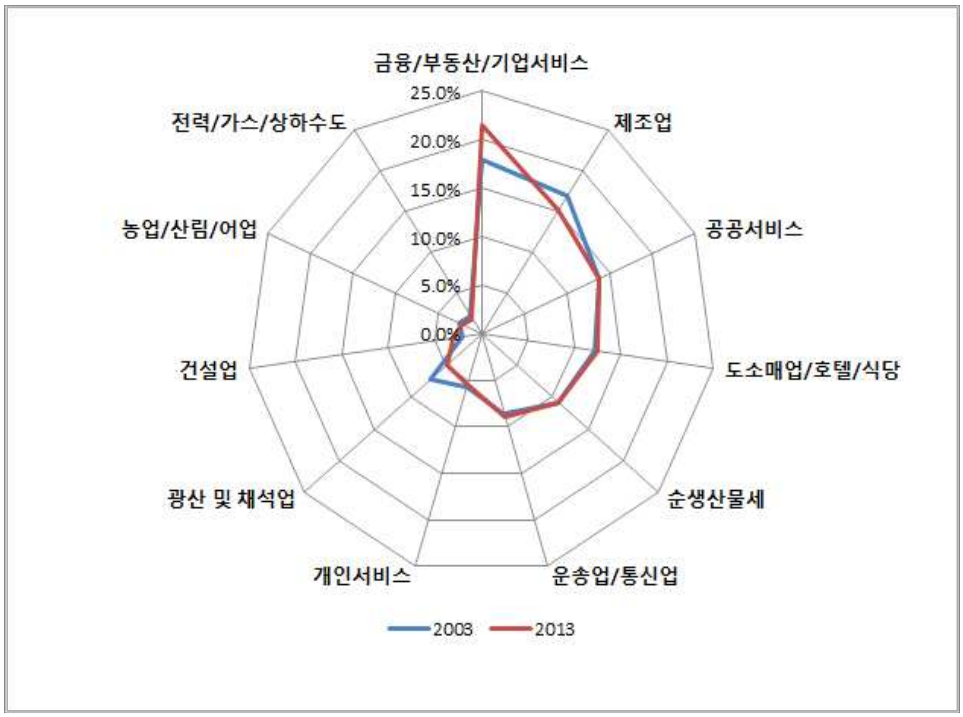
○ 현재 남아공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실업사태 및 사회 빈부격차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증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은 고용창출 확대가 크지 않기 때문임. 또한 남아공 공교육의 부실로,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인력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 ’고용시장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 2013년 기준, 3차산업의 GDP 내 비중 48%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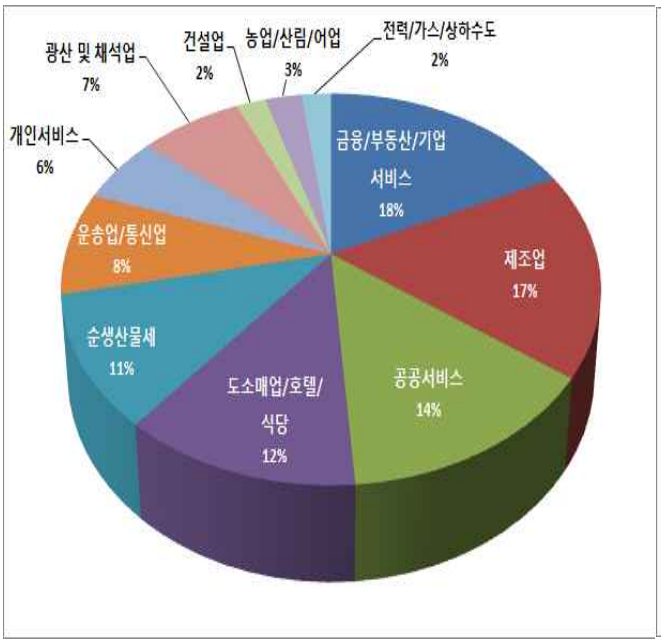
○ 금융·부동산·기업서비스 부분이 지난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성장(‘03년 18%→ ’ 13년 21%). 2013년 현재 산업별 GDP 내 비중은 유통·호텔·식당업은 13%, 운송·통신업 9%, 개인서비스는 5%를 차지

○ 제조업은 10년 전인 2003년 17%에서 15%로 감소했으며, 2009년에는 제조업규모 뿐 아니라 GDP내 부가가치비중도 2008년 16.4%에서 15.0%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여전히 둔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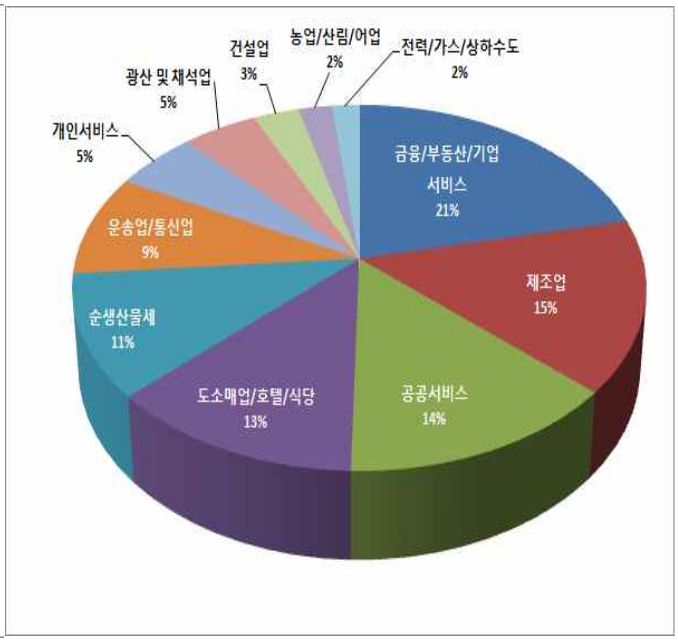
[남아공 GDP 내 산업별 비중 (2003년 VS 2013년)]



(2003년)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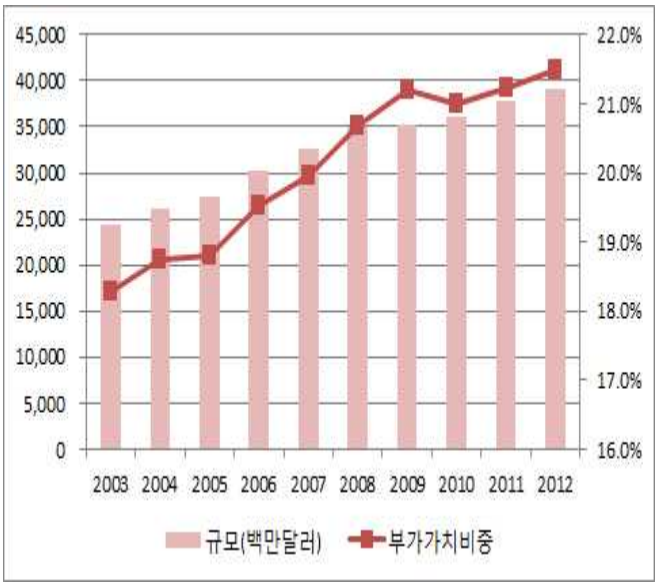


(자료원 : 남아공중앙은행, 남아공통계청, 산업무역부 자료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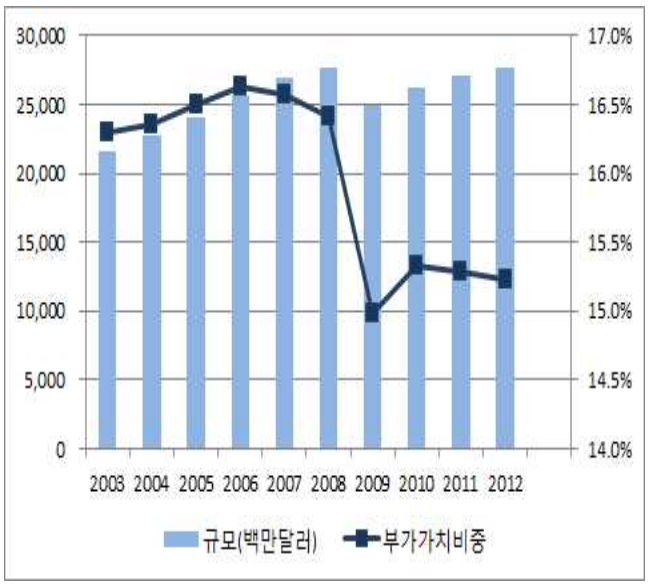
○ 금융・부동산・기업서비스 부분의 GDP대비 부가가치비중은 2003년 18.3%에서 2012년 21.5%로 증가하였으며, 총규모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390억 달러를 기록

[산업별 규모 및 GDP 대비 부가가치비중(%) 추이 (2003년-2012년)]

(금융/부동산/기업서비스)



(제조업)



(자료원: 남아공중앙은행, 남아공통계청, 산업무역부 자료기반으로 저자 작성)

2. 산업별 현황

□ 광산업

○ 남아공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업은 잦은 파업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요 감소, 전세계 원자재 가격 하락의 여파로 2012년에는 전년대비 4% 이상 감소함.

- 광산업의 남아공 총GDP 내 비중은 1970년 21%에서 2011년 6%, 2013년 4.9%로 감소해 왔음. 광산물 수출은 2013년 기준 남아공 전체 수출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2011년 전체 수출의 6% 차지), 총GDP 내 부가가치 비중은 9%를 차지

○ 광산업은 남아공 전체 법인세 중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이익이 매우 높고 고용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광산업계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519,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간접 고용인원은 8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음. 총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이나, 간접영향까지 포함할 경우 1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남아공 전체 수출에서 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3%로 광산업에 의해 전체 수출이 크게 흔들리는 매우 취약한 구조임.

[광산업 통계수치 (2011년 기준)]

항목	금액 (남아공 R백만 랜드)	비중
GDP(직접영향)	99,415	5.9%
GDP(간접영향 포함)	467,952	18.7%
직접 고용인원	519,000 명	6.1%
간접 고용인원	840,000 명	6.2%
수출	444,829	64.3%
법인세	18,553	17.0%
부가가치세	7,040	5.3%
로열티	5,612	-

(자료원: South Africa National Treasury)

□ 제조업

○ 남아공 제조업은 최근 10년 동안 자본집약적인 구조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는 기술혁신을 통한 노동비용·생산비용 절감, 무역자유화, 규모의 경제 등 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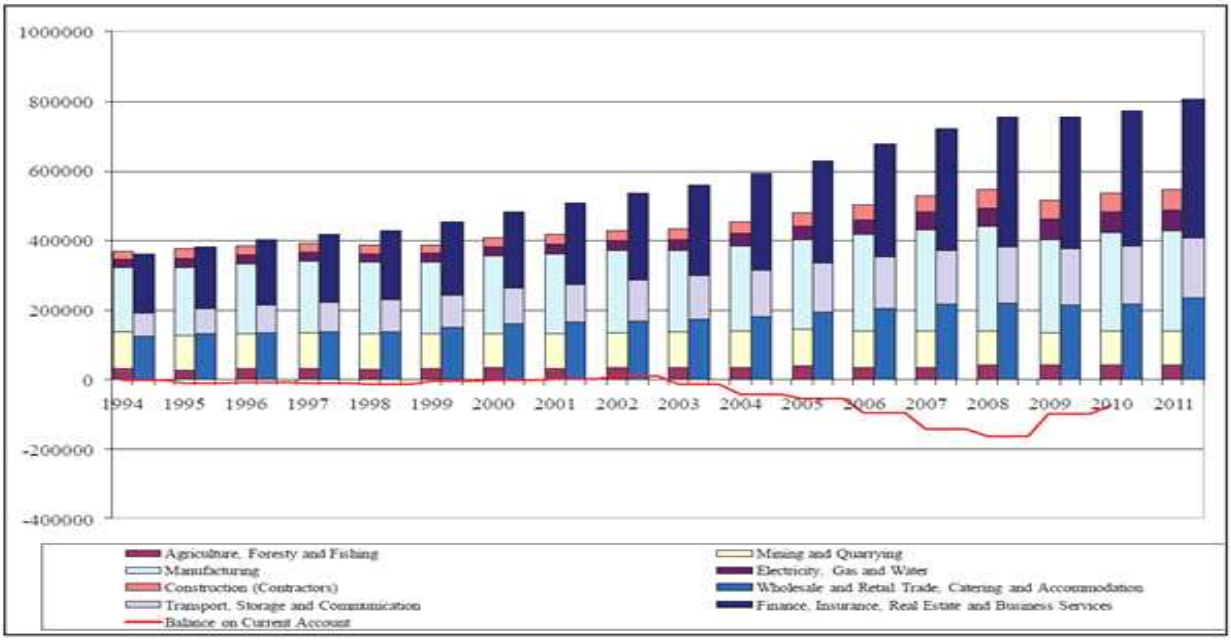
- 봉제업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현재 남아공 전체 경제규모의 7%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으나, 높은 기술을 보유한 숙련노동자들의 비율 증가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대체해 나가고 있음.

○ 남아공의 산업정책과 낮은 전기요금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최근 기술자 및 숙련노동자 부족, 국내 생산비용 증가, 금속노조의 잦은 파업과 폭력행위 등은 동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제조업 성장을 위해 남아공 정부가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안정적 전력 공급, 생산성 향상, 물류비용 저감, 기술자 양성 및 고급인력의 노동시장 공급 확대 등이며, 이같은 노력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만이 제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산업별 총생산 및 경상수지 추이 (1994년-2011년)

(단위: $백만 달러/2005년 화폐 기준)



(자료원: South Africa Reserve Bank)

□ 자동차 산업

○ 남아공 자동차산업은 남아공 제조업 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임. BMW, Ford, Volkswagen, Daimler-Chrysler, Toyota 등 글로벌 자동차제조사들이 남아공 현지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여 'Made in South Africa'를 부착하여 수출하고 있음. 남아공에서 생산된 차량은 EU에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음(2012년 66,929대의 차량이 EU로 수출)

[남아공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차량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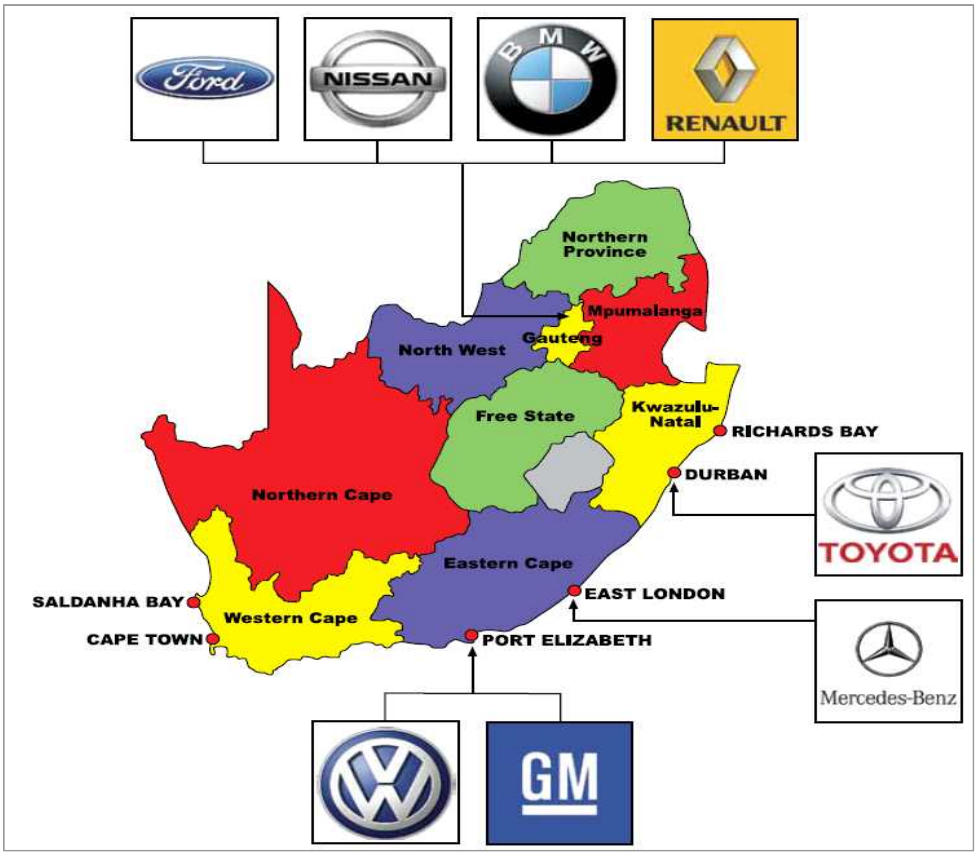
차량 종류	제조사	브랜드명	
승용차	BMW	3-Series 4-door	
	Ford	Focus, Icon	
	Mazda	Mazda 3	
	Mercedes Benz	C-Class 세단	
	Nissan	Tilda and Livina/Grand Livina	
	Renault	Sandero	
	Toyota	Corolla 4-door and Fortuner	
	Volkswagen	Polo new and previous series	
경상용차	Ford	Bantam and Ranger	
	Mazda	BT-50	
	General Motors	Corsa Utility and Isuzu KB	
	Mercedes Benz	Mitsubishi Triton	
	Nissan	Hardbody, NP300, NP200	
	Toyota	Hilux	
-	제조사		
중대형 상용차	Babcock	Nissan	Isuzu
	Flat	Peugeot	Ivenco
	Freightliner	Powerstar	MAN
	Fuso	Renault Trucks	Mercedes Benz
	General Motors	Scania	Toyota
	Hino	Tata	UD Trucks
	Volkswagen	Navistar International Trucks	

(자료원: 남아공자동차산업수출위원회)

○ 남아공 무역산업부는 자동차생산개발프로그램(APDP: Automotive Production Development Programme)을 추진하고, 자동차제조업의 가치사슬을 다양화하여 자동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동시에 실업난 해소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임.

* 2013년 3분기 현재, 남아공 자동차업계가 고용한 근로자수는 총 30,344명으로 집계

[남아공 내 자동차 제조회사 위치]



(자료원: 남아공자동차산업수출위원회)

□ ICT 산업

○ 남아공 ICT산업은 아프리카 역내 국가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모바일 소프트웨어와 전자뱅킹서비스가 ICT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선결제(pre-payment)시스템, 수익관리(revenue management)시스템, 부정행위방지(fraud prevention)시스템, 셋톱박스 제조에 있어서는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남아공 전체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SAECC(South African Electrotechnical Export Council)에 따르면, 남아공 ICT 산업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426억 달러이며, IT 산업 단독으로는 $162억 달러, 통신 산업은 $274억 달러로 추정되며, 남아공 총 GDP 내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추정됨.

□ 텍스타일, 의류, 제화산업

○ 텍스타일산업, 의류산업, 제화업은 제조업 전체 고용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아공정부의 전체 세수(tax revenue)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텍스타일산업은 일자리창출에 있어 가장 비용효율적인 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술개발에 힘입어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 또한 최근 합성섬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어패럴산업도 기술발전에 힘입어 선진화되고 있음.

□ 금융업

○ 남아공은 신흥시장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은 매우 정교한 선진국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994년 민주 정부 수립 이후, 글로벌 사회로의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투명성 및 사회책임 등이 남아공 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

○ 남아공은 금융부문의 규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왔는데, 특히 리스크관리 부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부합되고, 모범사례 기준에도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남아공 금융 산업은 상업 및 소매금융, 모기지 대출, 보험 및 투자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남아공의 대표적인 은행은 ABSA, Standard Bank, NEDbank, FNB 4개 은행임.

□ 농업

○ 농업은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1960년 총 GDP내 비중은 9.1%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2.2%까지 크게 감소됨. 이같은 현상은 농업 산업 자체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남아공 경제가 2차 산업이 성숙기에 이르고 3차 산업 위주 경제로 전환되어 가는 변화기에 있기 때문임.

○ 남아공은 필요한 거의 모든 농산품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고 있으며, 농산품 순수출국이기도 함.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2% 미만) 남아공 농업은 여전히 남아공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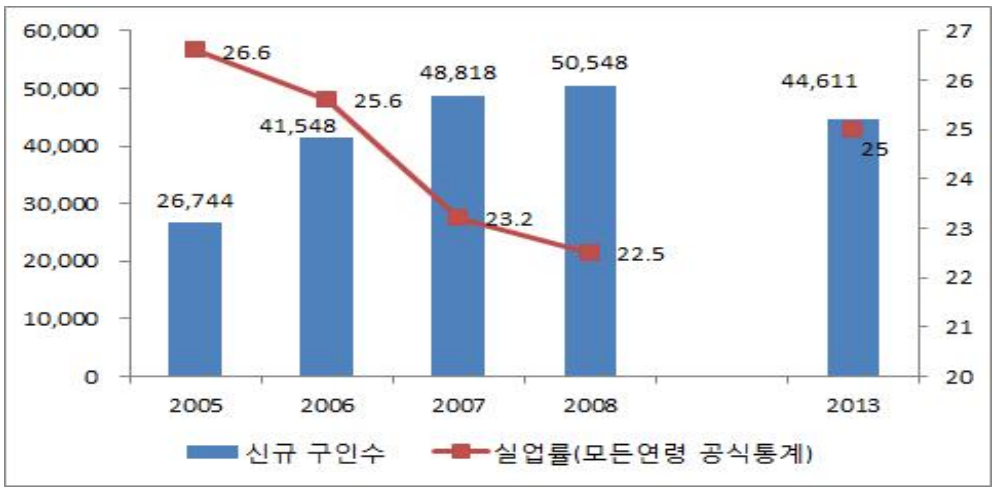
3. 고용 시장

□ 남아공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25%로 집계되나,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면 40%를 상회

○ 1970-1980년 기간에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현 집권여당인 ANC가 1994년 집권한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함. 1995년 15.6%였던 실업률이 2001년에는 30.3%까지 치솟았음.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농업분야의 일자리 규모도 크게 줄어들었음.

○ 2005-2008년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경기가 잠시 호조를 보여, 실업률이 2005년 26.6%에서 2008년 22.5%까지 감소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 25%를 기록함.

[신규구인수(명) 및 실업률(%) 추이 (2005-2008, 2013년)]



(자료원: 남아공노동부 연간 발표자료, 남아공통계청, 로컬뉴스 자료기반으로 저자 작성)

□ 서비스업종의 신규 구인수 비중 증가, 제조업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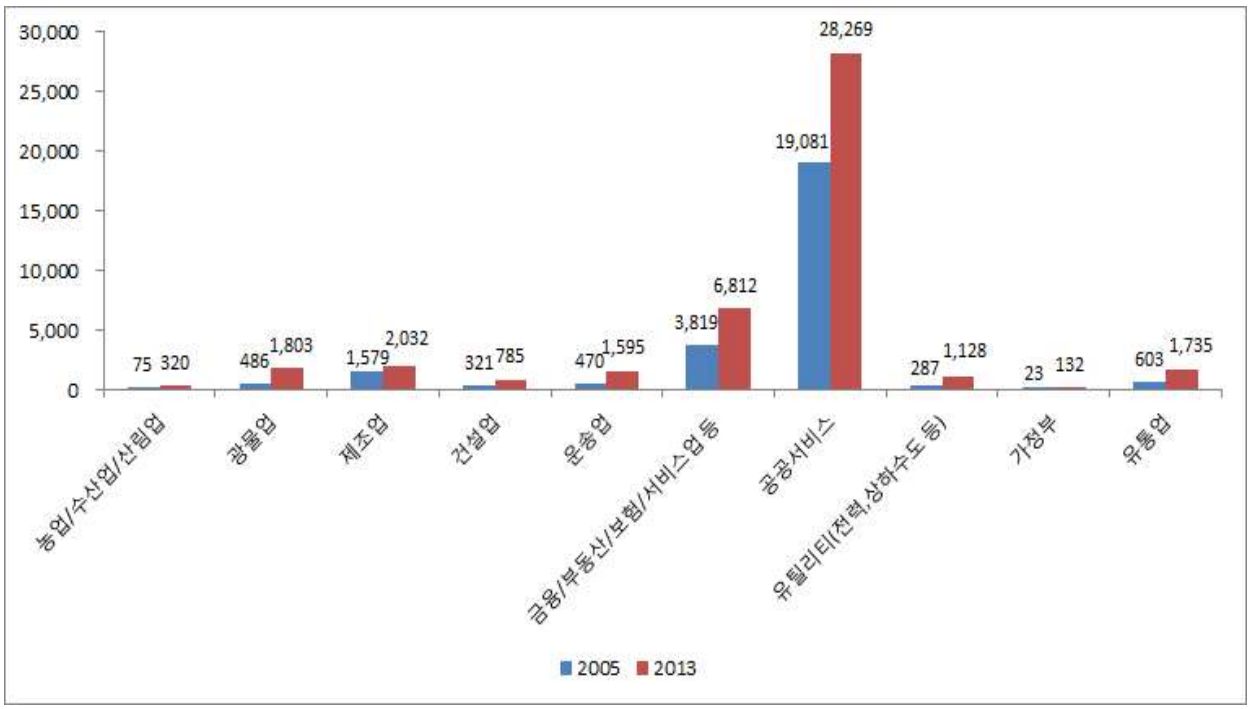
○ 전체 신규 구인수 대비 산업별 구인수 비중은 제조업은 감소한 반면, 금융·부동산·기업서비스업종은 증가

- 2005년 제조업 부분의 신규 구인수는 전체 구인수 대비 5.9%를 차지했으나, 2012년 4.6%로 감소한 반면, 금융·부동산·기업서비스업종은 2005년14.3%에서 2012년 15.3%로 증가

○ 공공·개인서비스업 부분의 신규 구인수는 2005년 71.3%, 2012년 63.4%를 차지하여, 고용시장에서 산업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산업별 신규구인수 및 비중 (2005년 VS 2012년)]

산업분야	2005년		2012년	
	신규 구인수(명)	전체 구인수 대비 비중(%)	신규 구인수(명)	전체 구인수 대비 비중(%)
농업/수산업/산림업	75 명	0.3%	320 명	0.7%
광산업	486 명	1.8%	1,803 명	4.0%
제조업	1,579 명	5.9%	2,032 명	4.6%
건설업	321 명	1.2%	785 명	1.8%
운송/통신업	470 명	1.8%	1,595 명	3.6%
금융/부동산/기업서비스업	3,819 명	14.3%	6,812 명	15.3%
공공/개인서비스업	19,081 명	71.3%	28,269 명	63.4%
기타	913 명	3.4%	2,995 명	6.7%
합계	26,744 명	100.0%	44,611 명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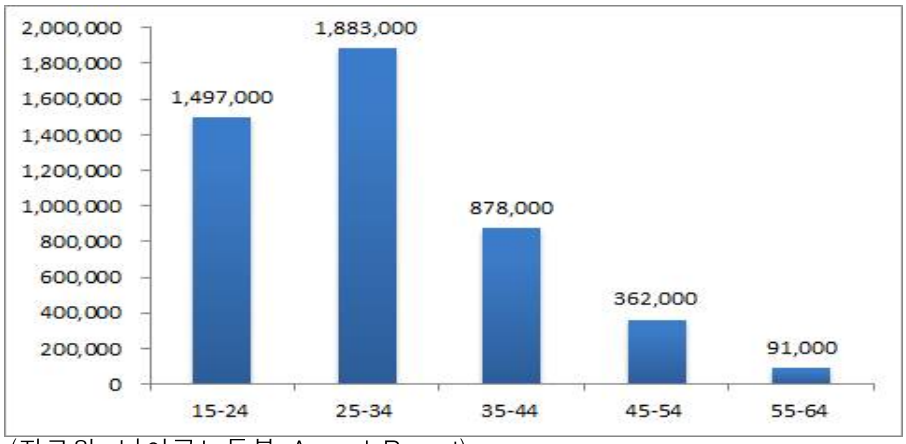
(자료원: 남아공노동부 연간 발표자료, 남아공통계청 자료기반으로 저자 작성)

□ 노동시장의 불일치(mismatch)와 젊은층 실업률 증가

○ 남아공은 특히 젊은층의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데, 34세 이하 젊은층의 실업률은 평균 40% 이상임. 이같은 현상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젊은층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낮고, 구직자들의 구직방식과 기업들의 구인방식이 상이하며, 구직자들의 학력 및 숙련도와 기업들의 원하는 인력 수준간에 차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금융·부동산·서비스업종 및 관리자·전문직 업종의 수요가 높은데 반해, 고용시장에 공급되는 인력수준은 이에 크게 못 미쳐 젊은층의 실업률이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임.

[연령별 실업인구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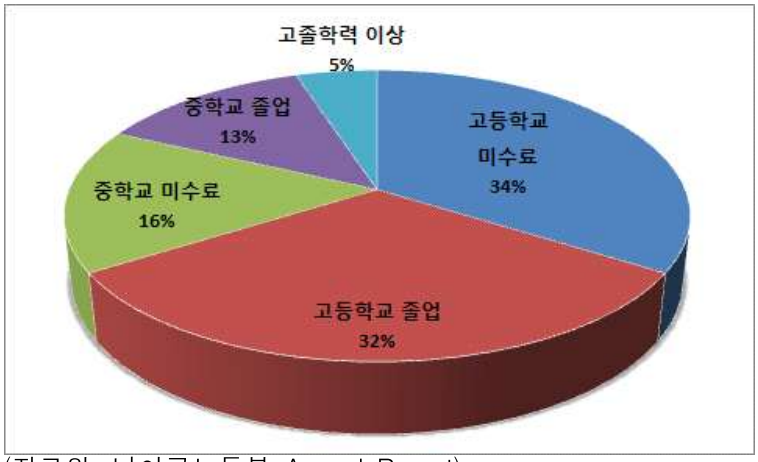
(자료원: 남아공노동부 Annual Report)

○ 남아공 젊은층의 높은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불일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공교육의 낮은 교육수준과 구인인력의 기술(skills) 부족은 남아공 실업률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신규 일자리는 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및 관리자 위주로 창출되고 있는 데 반해, 노동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인력수준은 이보다 현저히 낮아 소위 '인력의 기능불일치(skill mismatch)'가 커지고 있음.

○ 특히 남아공은 상위군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수준이 매우 낮은데, 이같은 현실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남아공의 미래에 큰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음.

○ 남아공 내 23개 공립대학교의 학사졸업률은 15%, 석사졸업률은 20%, 박사졸업률은 12%로 매우 낮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재정지원이 극히 드물고, 학술수준이 낮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에서 비롯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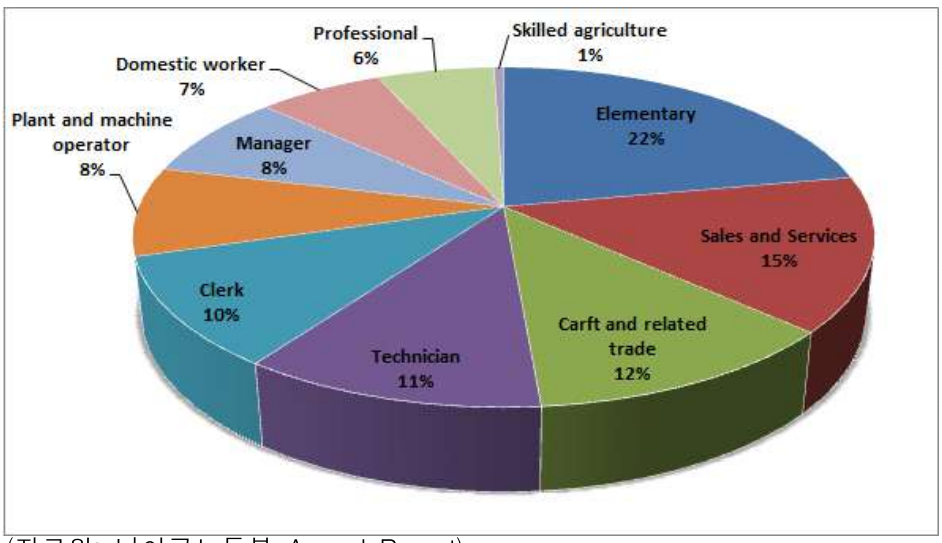
[남아공 전체 실업 신고건수 대비 학력별 신고 비중 (2012.4월-2013.3월)]



(자료원: 남아공노동부 Annual Report)

○ 구조적으로는 제조업의 쇠퇴가 양질의 일자리를 크게 축소시킨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2013년 3월 기준 전체 직업가운데 초등학교 교사직업이 22%를 차지하여 고용시장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판매서비스직이 15%, 공예무역이 12%를 차지했으며, 기술직은 11%, 플랜트・기계 운영직은 8%로 제조업 부분 고용률이 낮음.

[직업별 고용비율 (2012.4월-2013.3월)]



(자료원: 남아공노동부 Annual Report)

○ 남아공 정부는 이같은 젊은층의 고질적인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젊은층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그러나 남아공 재무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민간기업은 동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숙련된 중장년층 근로자를 젊은 근로자들과 대체하지는 않을 전망임.

- 남아공 정부는 2011년8월~2012년9월 기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분야 성장을 주도하여 82,000여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음.

○ 한편, 신규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남아공 내 강력한 Trade Union이 지목되어 왔음. 2010년에는 130만명의 공공근로자가 8.6%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4주간의 총파업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파업기간 중에 국립병원, 공립학교 등으로 출근하려는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바 있음. Trade Union의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파업, 폭력행위 등은 신규일자리 창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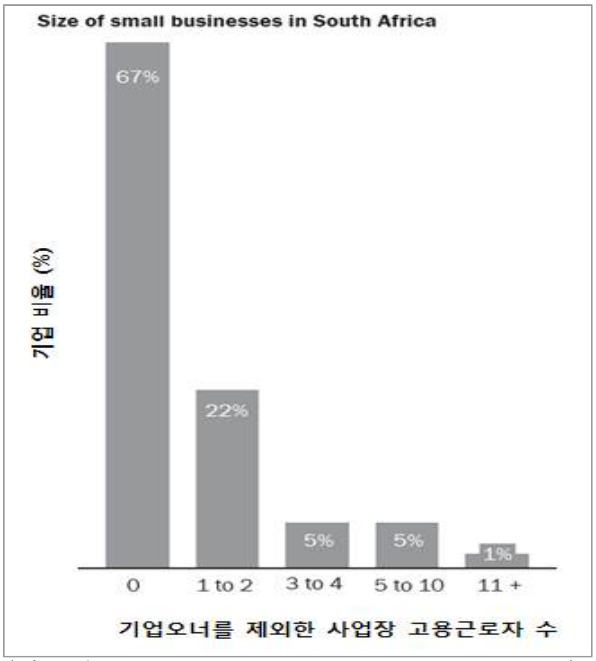
4. 중소기업 현황

□ 남아공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 중소기업

○ 2011년 주마대통령은 중소기업은 남아공 내 일자리창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연설한 바 있음. 2010년 기준 남아공 중소기업은 560만개로 집계되었으며, 1,16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그러나 대부분은 영세기업(micro-enterprises)으로 직원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이거나 1-2인 고용이 대부분인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남아공 전체 기업가운데 82%가 'micro' 또는 'very small' 기업으로 분류됨.

- 남아공 소규모기업(small-business)의 94%가 5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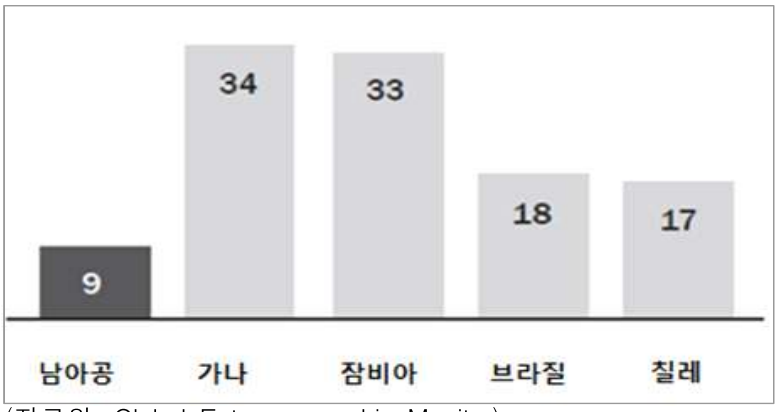
[남아공 소규모기업의 근로자 고용현황 (2010년)]



(자료원: Finscope Small Business Survey 2010)

○ 남아공은 상대적으로 '기업가정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영세·중소중견기업(SMME: Small-Micro-Medium Enterprise)이 고용하는 근로자는 전체 고용시장 대비 55% 수준이며, 이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9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국가별 전체기업 대비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 비율(%) (2010년)]



(자료원: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중소기업 성장의 한계 요소

○ (Aging) 제조업만 볼 때, SMME 가운데 43%의 기업오너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이들은 사후에 기업을 물려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Financing) 남아공 SMME 가운데 2%만이 은행대출이 승인되며, 신규기업 가운데 75%가 은행 대출이 거절되고 있음. 이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금융지원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임.

○ (Ability) 남아공 SMME은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네트워크가 크게 부족하며,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본지식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SMME의 역량부족은 남아공 공교육의 부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Society) 남아공 SMME이 영업활동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범죄·절도 문제, 강성노조의 높은 임금 인상 요구 및 잦은 파업, 유연성 낮은 노동법, 부실한 인프라(전력 부족, 높은 운송비용 등), 숙련근로자 부족 등임.

○ 남아공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은 신용보증대출, 직업훈련, 창업지원제도, 기술지원 등이며, 남아공 정부는 2012년 발표한 국가개발프로그램(NDP: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을 통해 SMME들에게 기업등록, 세제혜택, 노동제도 등의 정책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5. 에너지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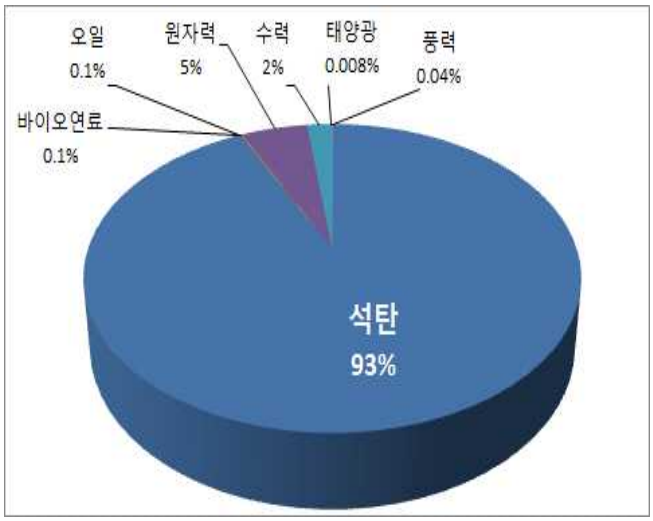
□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과다, 남아공 정부는 녹색경제(Green economy) 정책 이행

○ 남아공은 광산업 비중이 높아, 에너지 소모가 많고 에너지효율성도 매우 낮음.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석유화학, 자동차, 시멘트 공장들과 중소·영세기업들은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에너지 낭비가 매우 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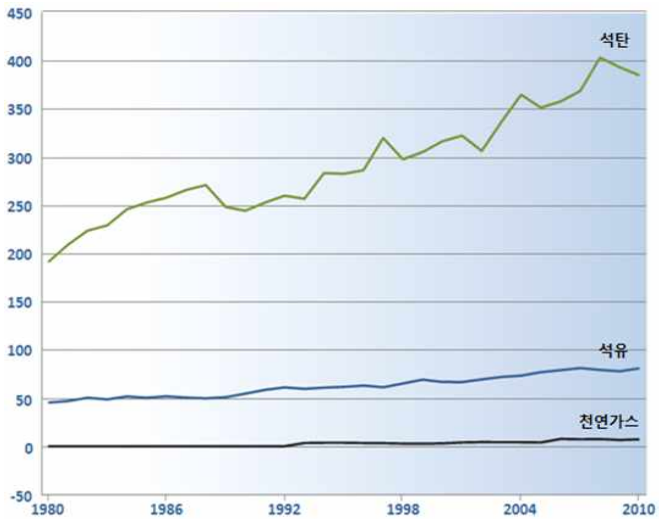
○ 남아공 전력원의 93%가 석탄에서 공급되어 CO_2 발생량이 매우 높으며, 특히 산업부분의 전력소비 비중이 높은 편임(2011년, 56.2%). CO_2 배출량은 2010년 기준 전세계 13위(460,124/thousands of tonnes)를 기록했으며, 1인당 CO_2 배출량은 7.27tCO_2/capita임.

-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준수 압력이 커지고 있어, 남아공 정부는 에너지효율성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등을 통해 '녹색경제(Green economy)' 정책을 추진 계획임.

[남아공 전력원 비율(GWh)]



[에너지원별 CO_2 배출량(Million Metric T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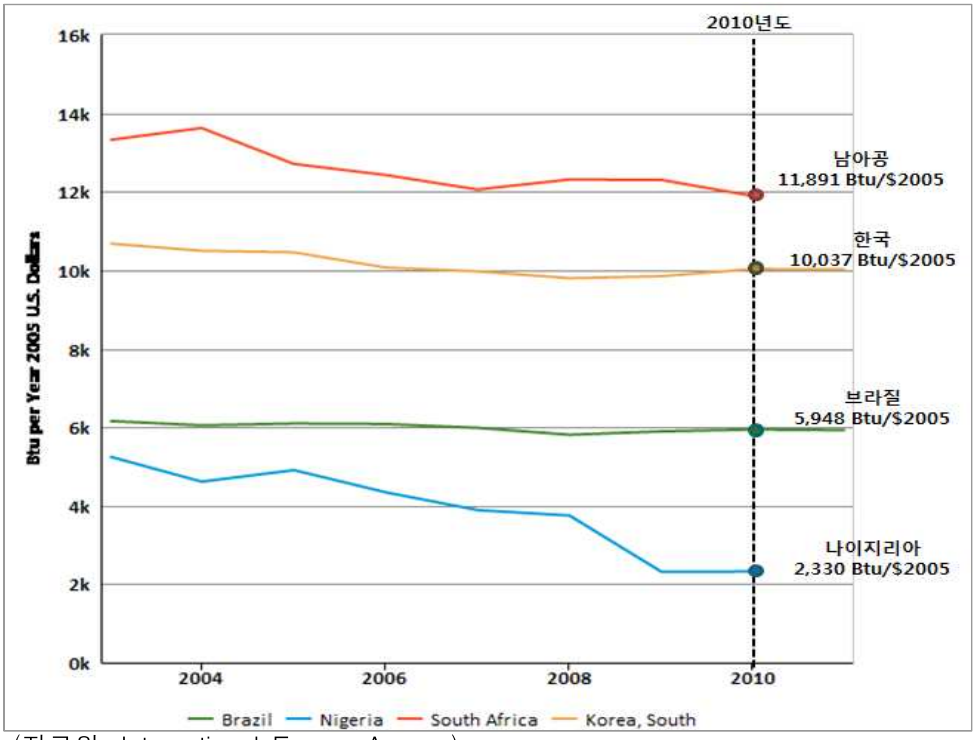
(자료원: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에너지집약도

○ 남아공 에너지집약도*는 2010년 기준 11,891 Btu/$2005를 보이며 BRICS 국가인 브라질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한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에너지소비량이 매우 높으면서 에너지효율이 낮은 국가임.

*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amount of energy)으로 '에너지 원단위' 지칭

[국가별 에너지집약도 현황]



(자료원: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II 남아공 경제 변화 분석

1. 경제 동향

(경제성장률)

□ 2014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저성장 예상

○ IMF는 지난 4월 남아공의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기존 전망치 2.8%에서 2.3%로 낮추어 발표함.

- 이같은 IMF의 전망은 남아공 경제가 외적으로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2014년 1분기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연율(annualized quarterly growth rate)이 0.6% 감소된 것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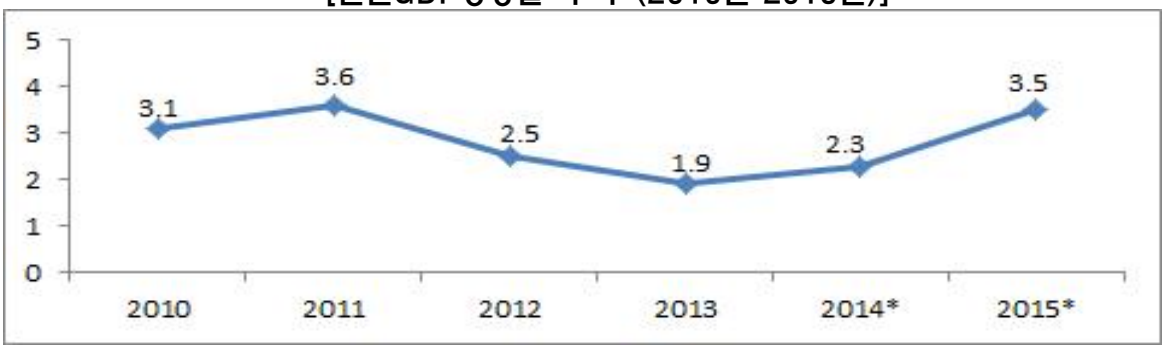
- 2014년 1분기 GDP성장률은 -0.6%를 기록하여 2013년 4분기 3.8% 성장에서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함.

[주요거시경제 지표 (2010년-2013년)]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실질 GDP증가율	%	3.1	3.6	2.5	1.9
명목 GDP	$백만 달러	365,504	403,976	382,656	351,027
1인당 GDP(PPP)	$달러	10,178	10,649	11,009	11,303
총인구	백만명	51.5	51.9	52.4	52.8
수출	$백만 달러	89,757	108,788	99,335	95,146
수입	$백만 달러	82,983	102,302	104,160	104,160
경상수지	$백만 달러	-7,192	-9379	-20,059	-20,445
외환보유고	$백만 달러	43,829	48,867	50,699	49,690
총외채	$백만 달러	43,829	48,867	50,699	139,491
평균환율	R:US$	6.59	8.08	8.48	10.49
실업률	%	24.9	24.8	24.9	24.7
소비자물가지수	%	3.4	6.4	5.7	5.3

(자료원: EIU)

[실질GDP성장률 추이 (2010년-2015년)]



(자료원: EIU), * 표시는 추정치

○ 경제성장 부진의 주된 원인은 광산업계의 장기파업에 기인함.

- 남아공 수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업계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이상의 장기파업으로 백금 등 주요광물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임.

- 2014년 3월 현재 광산업은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했으며, 특히 PGM (platinum group metals)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44.3%나 감소함. 또한 광산업계의 장기파업으로 제조업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남아공 광산건설노조연합(AMCU: Association of Mineworks and Construction Union)이 이끄는 7만여명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nglo American Platinum, Impala, Lonmion 등 전세계 최대 규모의 백금광산이 폐쇄됨으로써, 광산업 전체가 25% 감소

- 이같은 광산업계의 축소는 지난 50년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이며, 3개사는 $20억 달러의 매출감소를 보였고, 노동자들은 $8억8,500만 달러 상당의 임금손실을 기록함.

<남아공 광산업계 노조 vs 사측 임금협상 제시안>

(현황) 남아공 광산노동자들의 월평균 최소임금(보너스 및 복지 포함)은 $500불 미만
(노조측) 월평균 최소임금(보너스 및 복지 포함)을 $1,152달러 보장 요구
- 물가 및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최소 임금이라고 주장

(사측) 월평균 최소임금(보너스 및 복지 포함)을 $553불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 고수

○ 중기적으로는 전력수송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 서비스업종의 지속적인 성장, 저금리 등이 남아공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남아공의 지속적인 성장(growth)과 개발(development)을 위해서는 가장 큰 국가적 문제인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빈부격차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투자와 더불어 민간부분에서의 큰 폭의 성장 및 투자가 필요함.

(물가 및 소비)

○ 랜드화 가치 절화로 인한 물가 상승

- 급격한 랜드화 가치 절하에 따라 2013년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0.2% 상승하여 5.9%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물가상승률은 6.3%로 전망

- 남아공의 낮은 경제 성장률, 광산업 노조 파업 등의 부정적 거시 경제요소가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소비자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남아공 물가 및 소비 지표(%) (2010년-2015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민간소비증가율	4.4	4.9	3.5	2.6	3.1	3.8
물가상승률	3.4	6.4	5.7	5.9	6.3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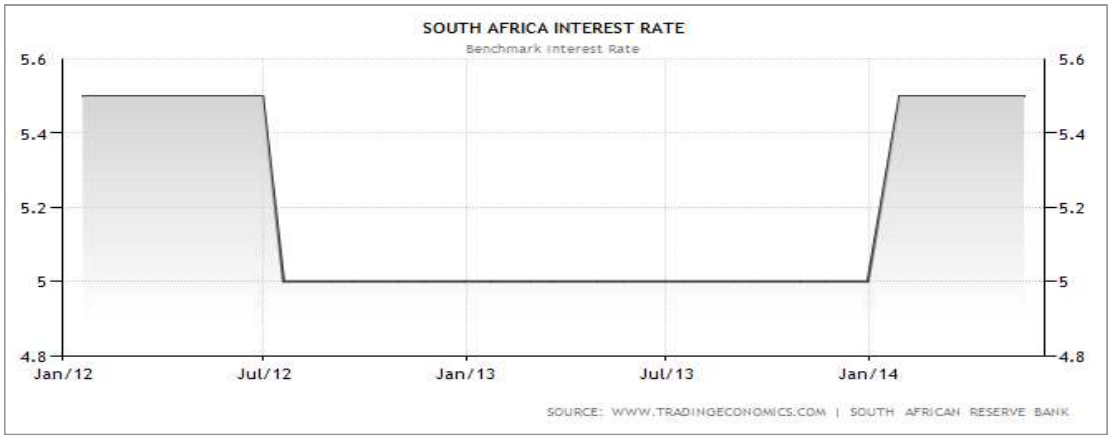
(자료원: South African Reserve Bank, EIU), *표시는 추정치

(금리)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동결 및 인상 계획

○ 남아공준비은행(SARB)은 지난 1월 말, 미 양적완화 축소계획 이후 급격한 랜드화 약세에 따른 인프레이션을 우려하여, 2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5%에서 5.5%로 인상함.

- 그러나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및 환율방어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남아공 금리 추이 (2012년-2014년1월)]



(자료원: Trading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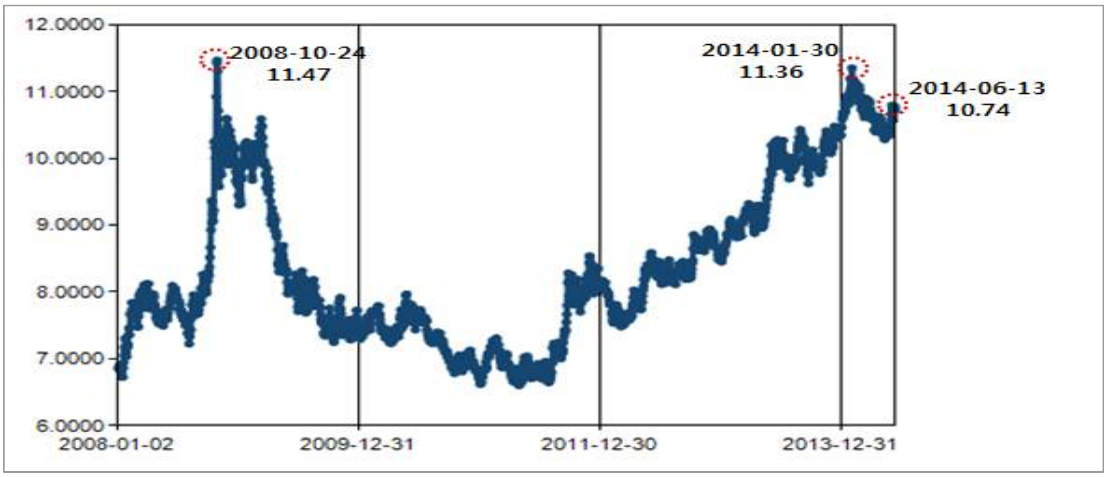
(환율)

○ 미 양적완화 축소 조치로 인한 랜드화 약세 및 대외수입 수요 감소

- 남아공 랜드화 가치는 지난 1월 미 양적완화 축소 조치 이후, 최근 5년간 최저치 기록('14.1.30일 $1 달러당 R11.36랜드 기록)

- 랜드화 방어를 위해 금리인상 조치(5%→5.5%) 이후 달러당 10.3~10.4랜드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 대선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남아공 금리 추이 (2008년-2014년2분기)]



(자료원: South African Reserve Bank)

○ 유로화 위기 우려가 반영된 환율변동폭 증가

- 신흥국 화폐가치는 달러화 대비 상승한 반면, 남아공 랜드화 가치는 하락. 특히 2012년 4분기에 남아공 랜드화는 'worst-performing currency'로 기록됨('12년 랜드화, 전년대비 8.5% 약세 기록)

[국가별 미국달러대비 환율 변동폭 추이(2010년-2013년)]

(자료원: Bloomberg)

(경상수지)

□ 경상수지 적자 GDP의 5.8%로 확대

[남아공 경상수지 (2010년-2014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상수지($백만 달러)	-7,192	-9,379	-20,059	-20,445	-22,730
무역수지($백만 달러)	6,774	6,486	-4,825	-7,630	-4,81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표시는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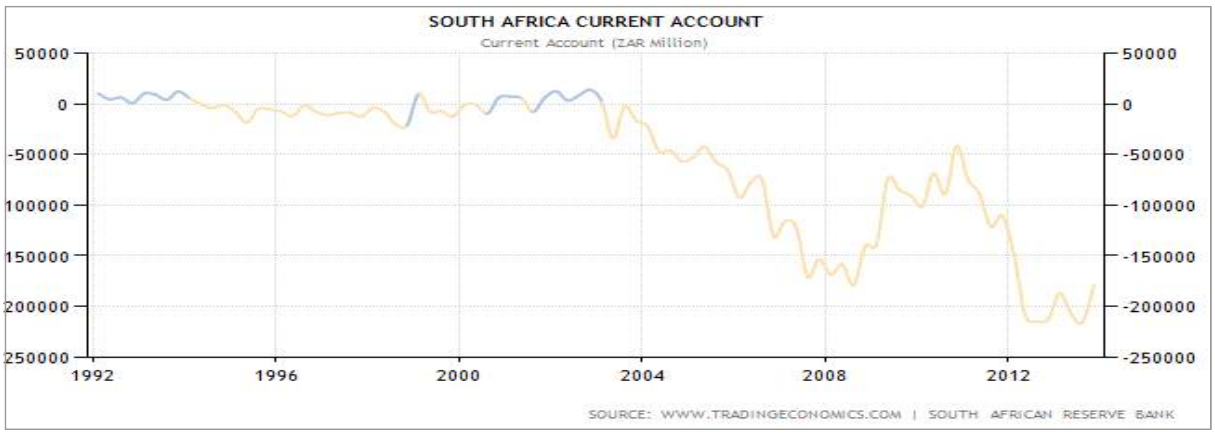
○ 월 18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로 외국인 투자유입이 절실하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금을 회수해 가고 있는 실정임.

- 남아공 경상수지는 2004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2011년 기간 적자폭이 감소되었으나, 2011년 유로화 위기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짐.

○ 남아공 정부는 2014년 2월 미 양적완화 축소 이후 이어지고 있는 랜드화 약세로 원자재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전망하고 있음.

[남아공 경상수지 추이 (1992년-2013년)]

(단위 : R백만 랜드)



(자료원: Tradingeconomi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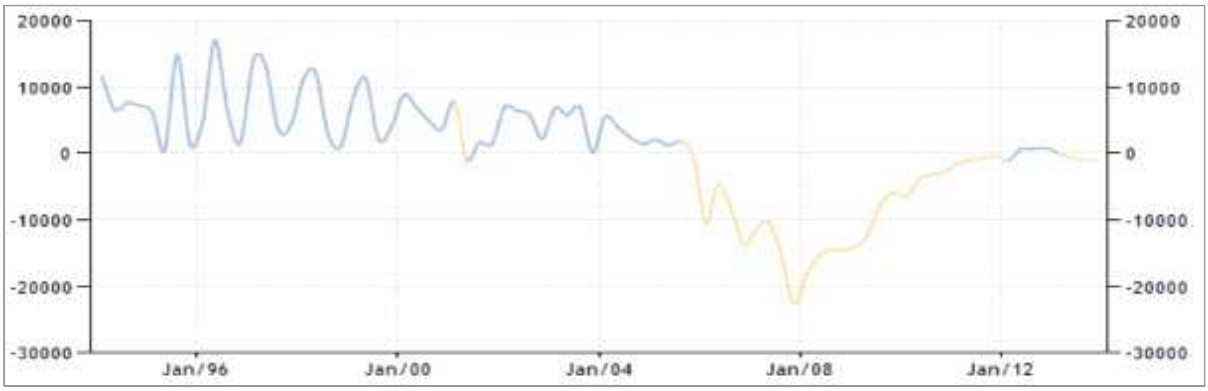
(저축)

○ 남아공 가계저축 총액은 지난 1994년 민주 정부 수립 이전보다 크게 감소됨.

- 1996년 2분기에 $1586.9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08년 까지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7년 4분기에는 $-234.9백만 달러로 최저 기록. 2008년부터 가계저축 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임.

[남아공 가계저축 총액 (1994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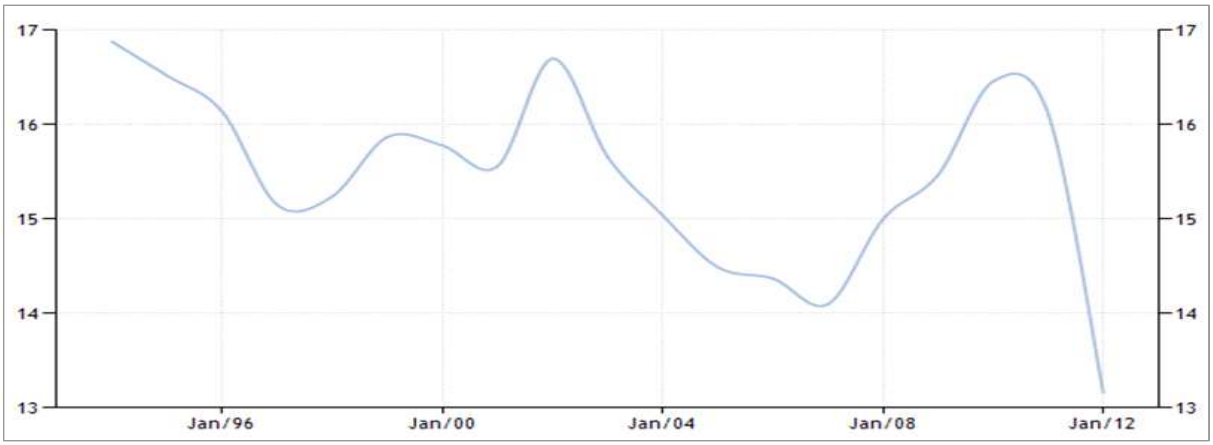
(단위 : R백만 랜드)



(자료원: Tradingeconomic.com)

○ GDP대비 가계저축률도 1994년 이전에는 17%를 상회하였으나, 2012년 1월 기준 13%에 머물고 있음.

[남아공 GDP 대비 가계저축률(%) (1994년-2012년)]



(자료원: Tradingeconomi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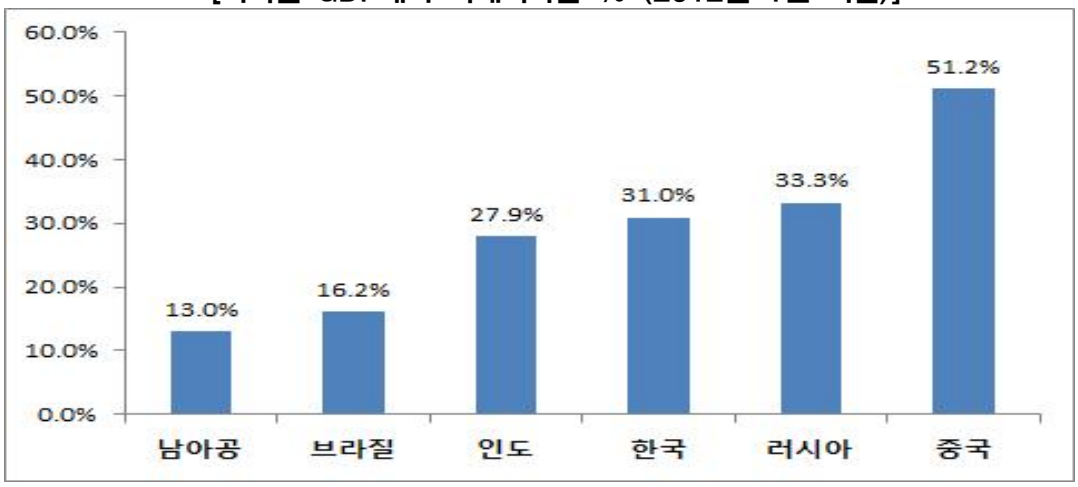
○ 남아공의 GDP대비 가계저축률은 신흥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인데, 이같은 현상은 남아공 국민의 소비지향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남아공 전 재무부장관인 Pravin Gordhan 장관은 남아공 저축률은 지속 가능하면서 포괄적인 경제성장에 가장 주요한 요소이나, 높은 실업률과 빈곤으로 인해 저축률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남아공의 극심한 소비위주의 풍토를 지칭하여 남아공이 'consumerist society'로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함.

- 남아공 국민들은 수입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경향보다는, 저축은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구입하는 소비지향 문화가 강함. 이러한 소비문화는 쉽게 벌고 쉽게 쓰려는 풍토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남아공내 부정부패가 확산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Gordhan 전장관은 흑인차별정책 폐지 이전에는 남아공 저축률이 30%까지 도달한 점을 지적하며, 저축을 높여야 외채부담을 해소하고 단기 자본 유입의 변동성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정부가 낮은 저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업률과 빈곤, 빈부격차 등의 사회 문제를 선결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국가별 GDP대비 가계저축률 % (2012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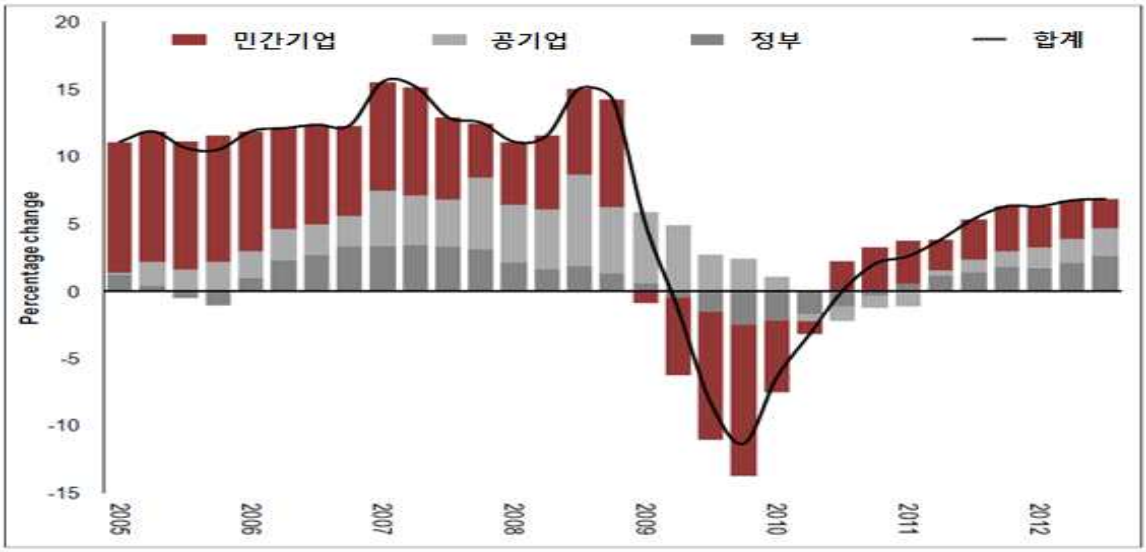


(자료원: World Bank)

(투자)

○ 남아공 국내투자는 2007년 이전까지 민간기업 투자 증가율이 정부투자 증가율을 크게 앞섰으나, 2008년 이후 민간기업 투자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2009-2010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민간기업투자 증가율은 2010년 3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09년 이전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음.

[남아공 부분별 투자 증가율(%) 추이 (2005년-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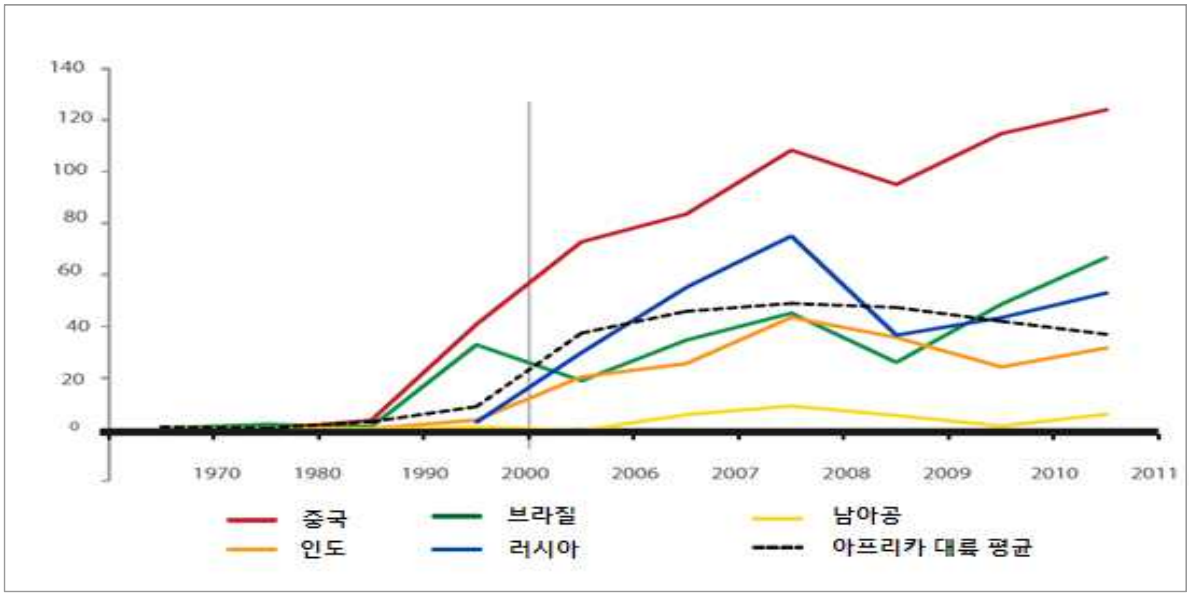


(자료원: South Africa National Treasury)

○ 남아공으로의 FDI유입 규모는 BRICS 국가가운데 남아공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0년 이후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로의 FDI 유입은 크게 증가된데 반해, 남아공으로의 투자금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음.

[BRICS 국가별 FDI 유입 추이 (1970년-2011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UNCTAD)

2. 무역구조

(무역수지 현황)

□ 선진국 경제둔화로 수출 감소,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

○ 남아공의 전통적인 최대 교역국인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둔화로 이들 국가로의 남아공 수출이 감소되어 남아공 전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특히 제조업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음.

-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3년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7,630백만 달러를 기록. 상품수출 감소와 수입 연료가격 상승, 고부가가치 상품 수입 증가로 당분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남아공 무역수지 현황 (2010년-2014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무역수지($백만 달러)	6,774	6,486	-4,825	-7,630	-4,81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표시는 추정치

○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선진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상쇄시켰으나, 남아공 수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함. 중국으로는 대부분 원자재를 수출하는데,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의해 전체 수출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되었음.

□ 인종차별정책 폐지 이전 대비, 무역수지 적자폭 증가

○ 2012년 이후 남아공 무역수지는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되고 민주화 선거가 시행되었던 1994년 이전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증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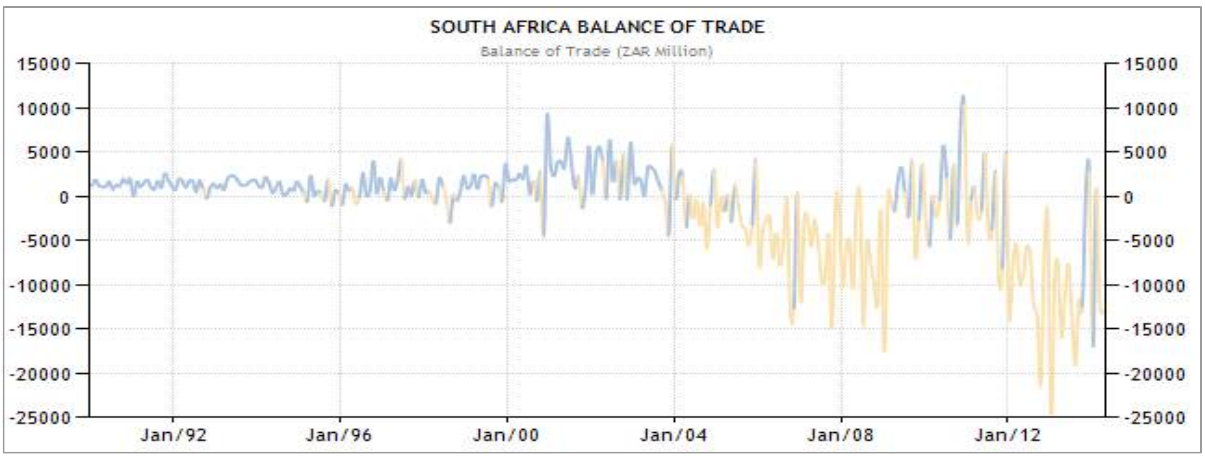
- 무역수지 적자폭의 원인으로는, 먼저 수입면에서는 1994년 이후 남아공 국민들 가운데 소비문화 확산으로 수입이 증가되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산 저가물품이 남아공으로의 유입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및 석유화학 등의 가격인상에 기인함.

- 수출면에서는 최대 수출품목인 광물자원 등 원자재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변동성, 남아공의 제조업 생산품의 수출 감소, 선진국의 경제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국내적으로는 남아공이 규모면으로는 3차 산업의 증가율이 1,2차 산업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데 반해, 국내산업 기반은 미미하여 필요한 물품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음.

[남아공 무역수지 추이 (1990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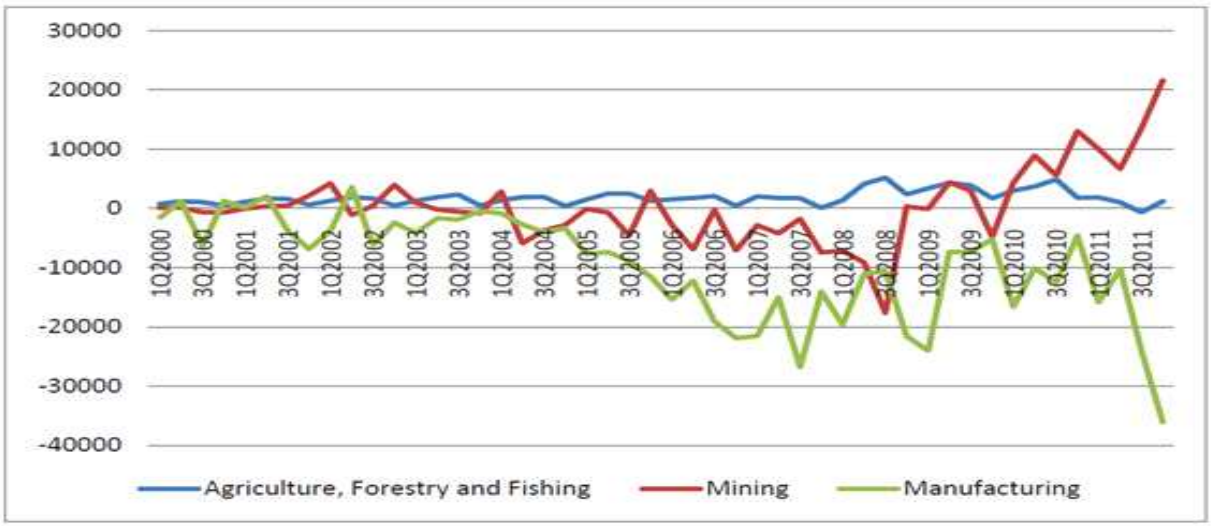
(단위 : R백만 랜드)



(자료원: Tradingeconomics)

[남아공 산업별 무역수지 추이 (2000년-2011년)]

(단위 : R백만 랜드)



(자료원: Quant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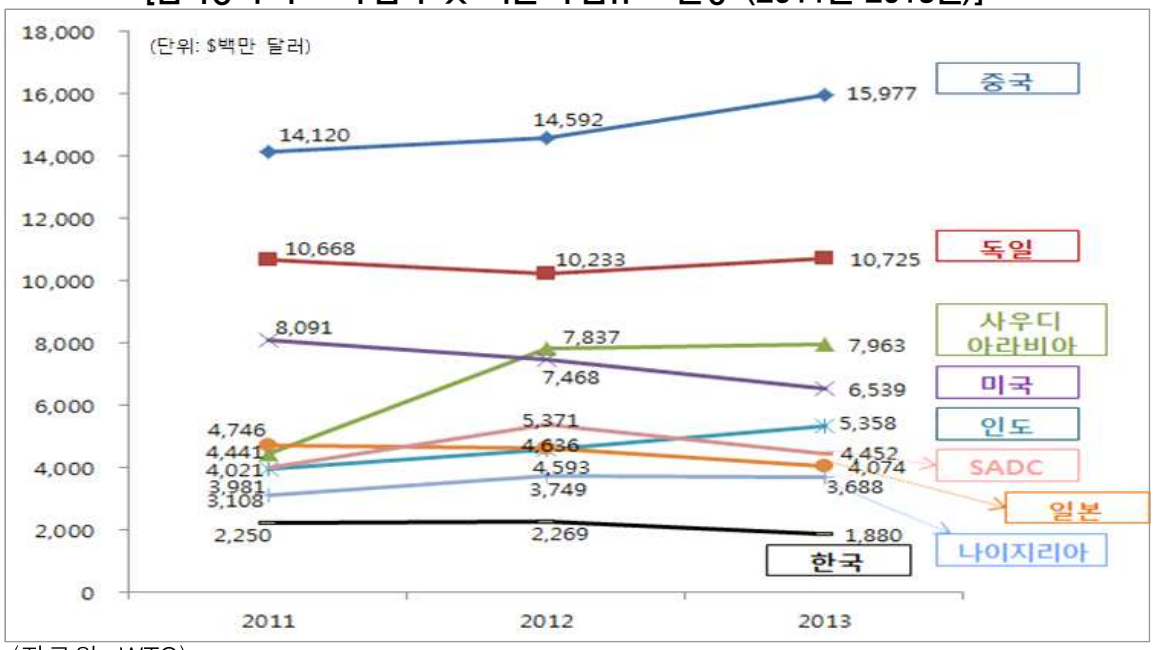
(교역구조)

□ 중국 및 신흥국,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증가

○ EU, 미국, 일본 등 전통적으로 최대 교역국들로부터의 수입은 감소된 반면,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등 신흥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증가되고 있음.

- 반면, 남아공의 수입금액 신고 실적 기준으로 남아공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3년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금액은 18억8천만달러를 기록하여 일본과 나이지리아로부터의 수입 규모 보다 2배 이상 격차를 보임.

[남아공의 주요 수입국 및 국별 수입규모 현황 (2011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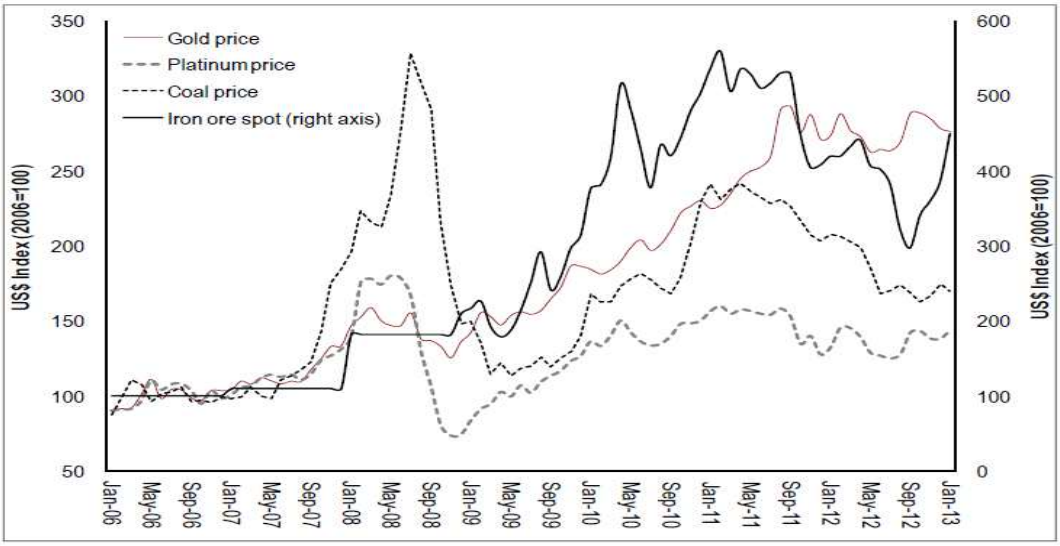


(자료원: WTO)

□ 광물자원 등 원자재 수출 비중 증가, 제조업 생산품은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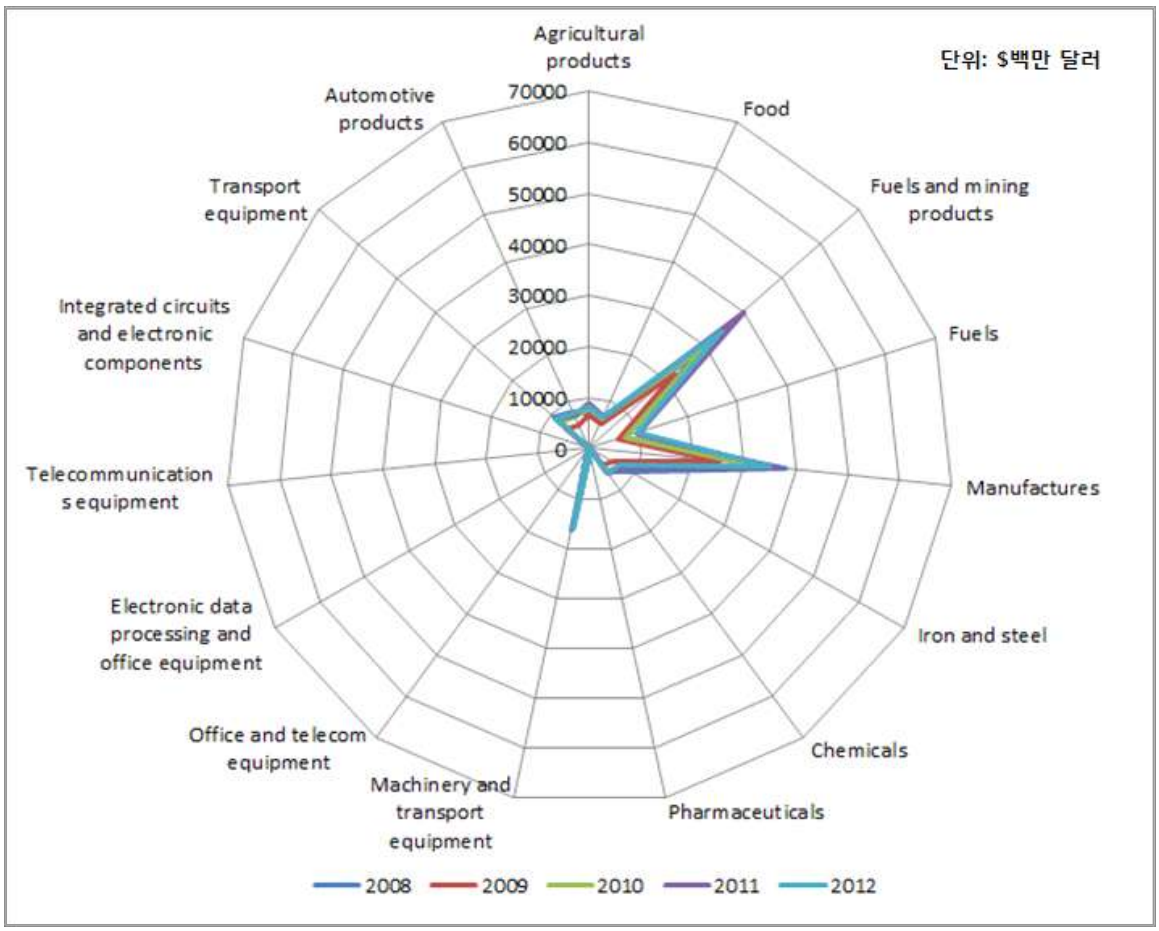
○ 남아공은 크롬, 백금(수출 총액의 10% 이상) 수출 1위국이며, 금, 석탄, 철광석, 자동차 등이 주요 수출품목임. 국제원자재 시장 가격변동폭이 큰 바, 남아공 수출은 외부변화에 매우 취약 구조임. 또한 제조업 생산품 수출은 감소되고 있어, 남아공 수출환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국제 원자재시장 가격변동 지표 (2006년-2013년)]



(자료원: Bloomberg, Index Mundi)

[남아공 수출품목 변화 추이 (2008년-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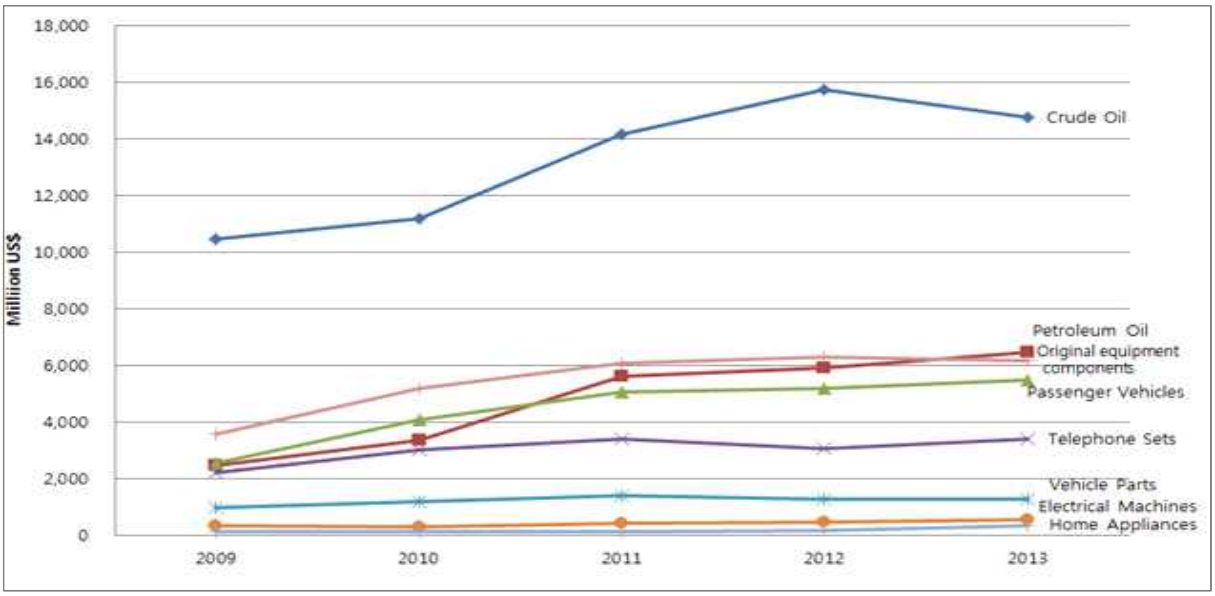


(자료원: 남아공무역산업부, 남아공통계청 자료기반으로 저자 작성)

□ 전체 수입에서 자동차·부품, 기계·기기류 등 제조업 부분 수입증가

○ 수입품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증가하였으나, 원유 및 석유를 제외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기·기계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자동차 구매 증가,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힘입은 수송차량 및 부품 수요 증가, 통신산업 성장에 따른 기기류 등의 수요 증가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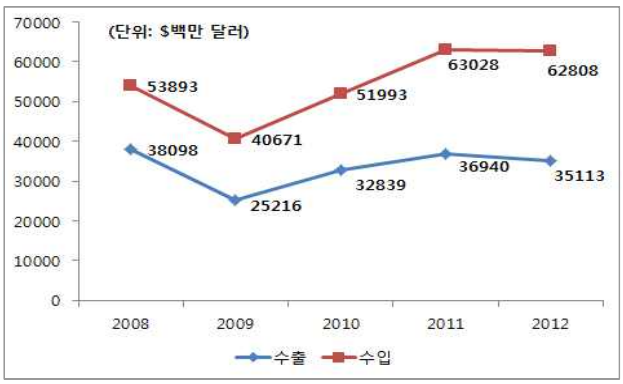
[남아공 주요 수입 품목 추이 (2009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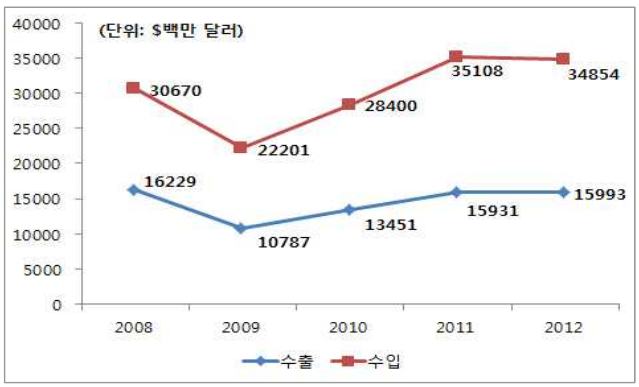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남아공 제조업 부분 수출입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계수송부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기계·수송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되어 2009년 222억1백만 달러에서 2012년 348억54백만 달러까지 증가

[남아공의 제조업 부분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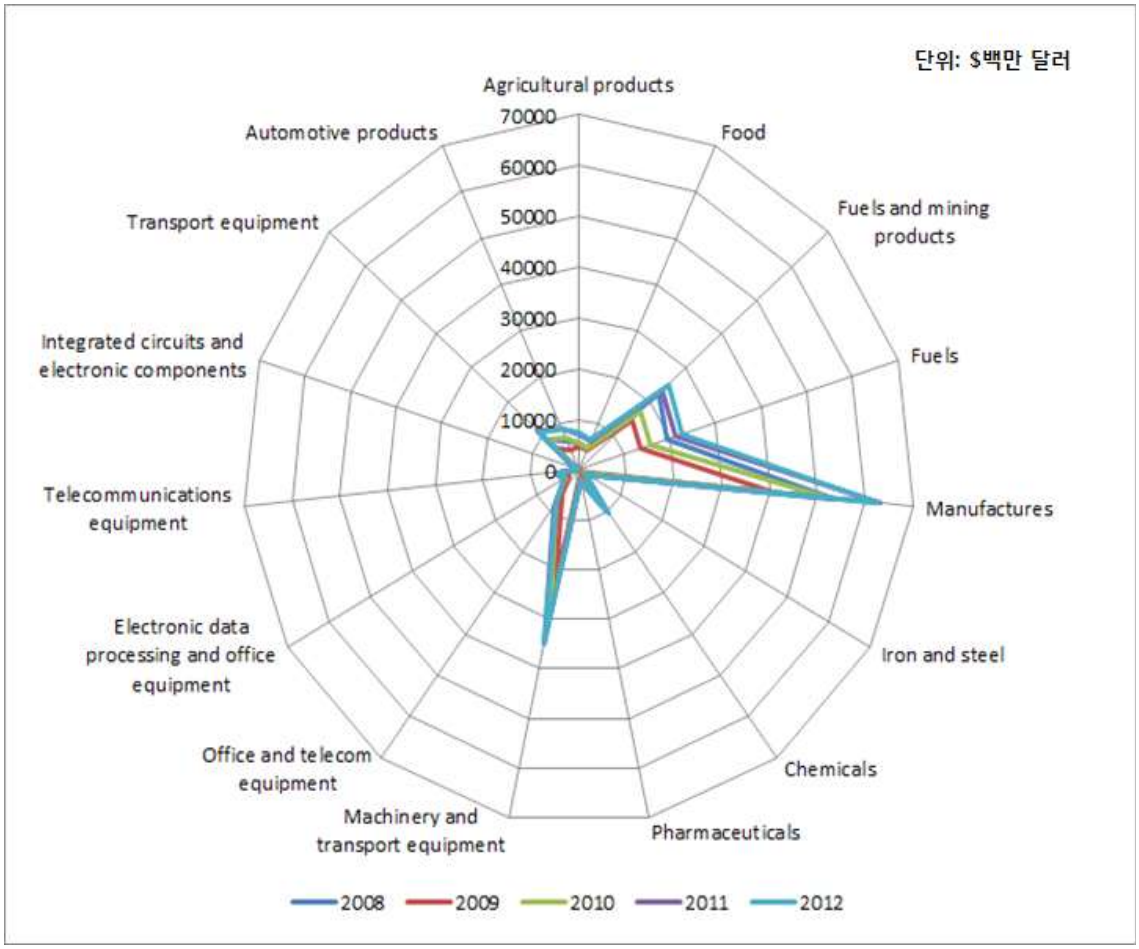
[남아공의 기계·수송부품 수출입 추이]



(자료원: 남아공무역산업부, 남아공통계청 자료기반으로 저자 작성)

○ 지난 5년간 남아공 전체 수입가운데 크게 증가한 품목은 제조업 생산품, 연료, 기계·수송부품 등이며, 남아공 전체 경제성장 대비 제조업 성장 둔화로 시장에서 요구되는 생산품이 국내 수요 및 기준에 못 미쳐 해외로부터 필요한 기기 및 기계류 수입이 증가됨.

[남아공 수입품목 변화 추이 (2008년-2012년)]



(자료원: 남아공무역산업부, 남아공통계청 자료기반으로 저자 작성)

[남아공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2009년-2013년)]

연도	수 출					수 입				
	순위	HS 코드	품목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순위	HS 코드	품목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2009			총합계	62,380	-			총합계	64,867	-
	1	7110	백금	6,905	11.1	1	2709	원유	10,454	16.1
	2	7108	금	6,427	10.3	2	9801	자동차 기계부품	3,563	5.5
	3	2701	석탄	4,255	6.8	3	2710	승용차	2,526	3.9
	4	8703	승용차	3,200	5.1	4	8703	석유와 역청유	2,438	3.8
	5	2601	철광	3,086	4.9	5	8517	전화기	2,203	3.4
2010			총합계	81,310	-			총합계	80,211	-
	1	7110	백금	9,397	11.6	1	2709	원유	11,202	14.0
	2	7108	금	8,603	10.6	2	9801	자동차 기계부품	5,184	6.5
	3	2701	석탄	5,515	6.8	3	8703	승용차	4,078	5.1
	4	2601	철광	5,328	6.6	4	2710	석유와 역청유	3,354	4.2
	5	7202	합금철	4,733	5.8	5	8517	전화기	3,013	3.8
2011			총합계	96,701	-			총합계	100,008	-
	1	7110	백금	11,068	11.4	1	2709	원유	14,161	14.2
	2	7108	금	10,248	10.6	2	9801	자동차 기계부품	6,075	6.1
	3	2601	철광	8,312	8.6	3	2710	석유와 역청유	5,611	5.6
	4	2701	석탄	7,364	7.6	4	8703	승용차	5,057	5.1
	5	7202	합금철	4,736	4.9	5	8517	전화기	3,370	3.4
2012			총합계	87,263	-			총합계	101,557	-
	1	7108	금	8,686	10.0	1	2709	원유	15,755	15.5
	2	7110	백금	7,907	9.1	2	9801	자동차 기계부품	6,278	6.2
	3	2601	철광	7,533	8.6	3	2710	석유와 역청유	5,884	5.8
	4	2701	석탄	7,025	8.1	4	8703	승용차	5,176	5.1
	5	7202	합금철	3,562	4.1	5	8517	전화기	3,057	3.0
2013			총합계	83,436	-			총합계	100,398	-
	1	7110	백금	8,405	10.1	1	2709	원유	14,757	14.7
	2	2601	철광	7,673	9.2	2	2710	석유와 역청유	6,438	6.4
	3	7108	금	6,633	7.9	3	9801	자동차 기계부품	6,141	6.1
	4	2701	석탄	5,788	6.9	4	8703	승용차	5,477	5.5
	5	7202	합금철	3,590	4.3	5	8517	전화기	3,387	3.4

(자료원: World Trade Atlas)

IV 주마 대통령 집권 2기의 개혁 과제 및 주요 정책 방향

1. 신정부의 개혁 과제

□ 실업률 해소 및 일자리 창출

○ 남아공 정부는 2020년까지 5백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경로(New Growth Path)'을 2010년에 확정하고 추진 중임.

- 6개 부문(인프라, 농업, 광업, 녹색산업, 관광, 서비스업) 신성장동력 발굴, 노사 간 사회협약 체결, 실업률 감소(25%→15%)를 위해 부문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주마 행정부는 실업 문제 해결과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어 양자(bilaterla) FTA 체결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과 체결했던 상호투자협정(BIT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을 폐지했음. 또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와의 BIT 철폐를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오스트리아, 덴마크와의 BIT 철폐도 검토 중에 있음.

○ 남아공 정부는 국가개발계획(NDP)의 실행, 녹색경제 정책 추진, 혁신(innovation)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증대, 과학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에 대처할 것임을 시사

□ 노사관계

○ 주거비 상승, 고실업률, 사회 불평등 심화로 남아공 대 노사관계 및 치안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특히 남아공 경제의 중추인 광업 분야에서의 임금인상 요구 파업 및 과격 시위는 대외적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부는 라마포사 부통령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협력하여 광업부문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임.

□ 친기업 정책 추진

○ 집권여당인 ANC의 총선 승리로 재선에 성공한 주마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친기업적 개혁 추진을 시사

- ANC 궤데 만타셰 사무총장 또한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국가개발계획(NDP)을 착실하게 수행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새로 들어설 내각 역시 시장경제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 밝힘.

- 지난 재임기간 중 경제성장세 둔화와 파업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최근 사저 스캔들까지 겹쳐 위기에 처했던 주마 대통령은 노조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친기업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임.

2.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의 산업발전 로드맵*을 담고 있는 '2014/2015-2016/2017년도 산업정책 사업계획서'를 발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산업발전계획의 목표는 포괄적 경제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과의 공동 성장임.

□ 산업 발전

○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량 증가 및 부가가치 향상에 집중

○ 노동 효율성 증가, 국가 경쟁력 향상,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대기업들을 위한 지원 확대, 수출의 부가가치 향상, 교역 개선, 아프리카 사회 기반시설 투자 및 개발, 경쟁력과 통합성을 갖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기존 산업 업그레이드 및 신규 육성사업 지원

- 주력산업인 광업, 석유화학, 자동차업종 지원과 더불어 성장산업인 조선, 석유·가스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다변화를 시도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국내 및 글로벌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는 제조업 성장을 위해 '우대 구매정책법'을 통한 정부의 공공조달로 제조업 기업 지원

□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수출경쟁력 증대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녹색경제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10년간(2011년 기준)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2012년 남아공 재무성은 R800백만 랜드 규모의 예산을 2년간 남아공 정부가 설립한 녹색기금(Green Fund)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녹색경제프로젝트 지원 계획 발표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전력원 다변화, 에너지부분 개선 및 정책개발을 통해 녹색성장 적극 추진

* 남아공 정부는 2012년 5월 기준으로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총 R73백만 랜드 규모의 19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허가

- 신재생에너지민자발전조달프로그램(REIPPP: 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curement Programme) 계획 등을 통해 제조업에서 17.8 GW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및 적극 실행

□ 특별경제구역(SEZ) 조성

○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을 설립하여 SEZ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기존 28%보다 13% 낮춘 15%로 적용(남아공 무역산업부가 의회에 법안 제출 완료)

* 현재 남아공의 총 4개의 산업개발구역(IDZ)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특별경제구역을 추진

○ 특히, '녹색분야' 산업을 중점유치하고 자유무역지대 수준으로 운영. 기존 고부가가치세 면세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차원에서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전기세 환급, 건물세 보조 등의 혜택 지원

[남아공 기존 및 신규 특별경제구역(SEZ)]

구분	소재지	지명	주력 분야
기존 IDZ	Eastern Cape	Coega	전자, 자동차, 섬유, 중공업
	KwaZulu-Natal	Eastern Cape	자동차, 섬유, 의약품
		Richards Bay	철강, 화학, 식음료 가공
	Gauteng	OR Tambo 국제공항	물류
	Western Cape	Saldanha Bay	석유
신규 SEZ	Limpopo	Musina	석유화학, 석탄, 물류, 식품
	Northern Cape	Greater Tubatse	백금속, 수소연료전지
		Rustenburg	백금
		Upington	태양열
	Free State	Nasrec	식품가공, 물류
	KwaZulu-Natal	Harrismith	식품가공, 물류
	Eastern Cape	Dube Trade Port	식품가공, 물류
		Wild Coast	식품가공
	Western Cape	Atlantis	재생에너지

□ 지식기반경제 전환을 위한 혁신

○ 지식기반경제 전환을 위한 가장 큰 도전으로 ① 'Farmer to Pharmer value chain' 을 목표로 남아공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생명공학기술 및 제약기술을 발전시켜 10년 내 전세계를 주도하는 기술력 확보, ② 우주과학기술 개발 ③ 에너지안보 대처 (중기- 에너지 공급 확대, 장기- 청정석탄기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④ 기후변화 과학 개발, ⑤ 사회역학(social dynamics) 연구 확대, ⑥ 남아공의 풍부한 백금을 활용한 연료전지 개발 및 투자 확대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①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극 대처, ② 범죄 리스크 감소, ③ 질병대응 신약 개발, ④ 지속가능에너지 개발, ⑤ 가뭄에 대응, ⑥ 질병에 강한 농작물 품종 개발, ⑦ 공정과정의 혁신 등을 도모

□ 광업 분야 가공업 육성

○ 남부 웨스턴 케이프 지역에 R150억 랜드 규모의 금속가공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단순 자원 채광·수출의 현재 방식을 개선. 전략 광종 채광, 제련 등 일련의 가공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7천 개 일자리 창출 효과 창출

□ 인프라 투자 확대

○ 2012-2014년 3년간 R8,002억 랜드화를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여 운송비용 절감 및 수출시장 접근성 개선. 인프라 개발은 주로 전력, 운송, 물류, 병원, 인적자본에 대한 교육 등에 투자되며, 전력개발 투자를 통해 2011년 공급 기준에서 두 배 이상 전력공급량 확대

V 한국의 남아공 진출 시사점

1. 남아공과의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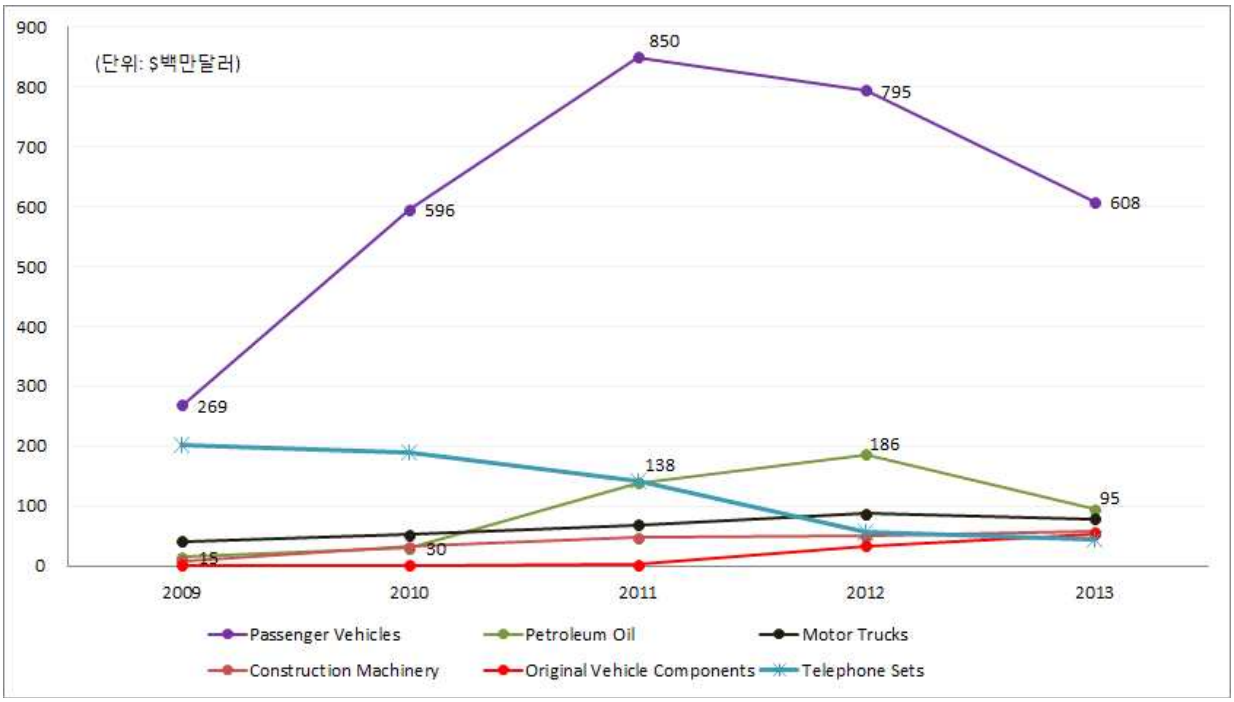
□ 남아공의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 수입 감소

○ 한국의 대남아공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HS code: 8703), 석유와 역청유(2710), 전화기세트(8517) 등의 남아공 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전화기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

- 남아공의 한국으로부터의 승용차 수입은 2009년 $269백만 달러에서 2011년 $850백만 달러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여 2013년에는 $608백만 달러에 그침.

- 남아공 통신산업의 고속성장과는 반대로 한국으로부터의 전화기세트 수입은 2009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음. 남아공의 한국산 전화기세트 수입은 2009년 $201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44백만 달러까지 떨어짐.

[남아공의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 수입 현황 (2009년-2013년)]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남아공의 수입신고금액 기준)

[한국의 대남아공 주요 수출품목(2009년~2013년)]

연도	순위	HS 코드	품목	금액 ($백만 달러)	비중
2009	1	8703	승용차	269	23.1%
	2	8517	전화기	201	17.3%
	3	8704	화물자동차	41	3.5%
	4	8418	냉장고	31	2.7%
	5	4810	종이와 판지	29	2.5%
	2009년도 총수출 금액			1,163	-
2010	1	8703	승용차	596	33.6%
	2	8517	전화기	190	10.7%
	3	8704	화물자동차	52	2.9%
	4	4810	종이와 판지	42	2.4%
	5	8429	건설기기	32	1.8%
	2010도 총수출 금액			1,774	-
2011	1	8703	승용차	850	37.8%
	2	8517	전화기	142	6.3%
	3	2710	석유와 역청유	138	6.1%
	4	8704	화물자동차	68	3.0%
	5	8429	건설기기	47	2.1%
	2011년도 총수출 금액			2,249	-
2012	1	8703	승용차	795	35.0%
	2	2710	석유와 역청유	186	8.2%
	3	8704	화물자동차	87	3.8%
	4	8529	TV, 라디오 부분품	56	2.5%
	5	8517	전화기	56	2.5%
	2012년도 총수출 금액			2,269	-
2013	1	8703	승용차	608	32.4%
	2	2710	석유와 역청유	95	5.1%
	3	8704	화물자동차	78	4.2%
	4	8429	건설기기	57	3.0%
	5	9801	기계부품모음	53	2.8%
	2013년도 총수출 금액			1,8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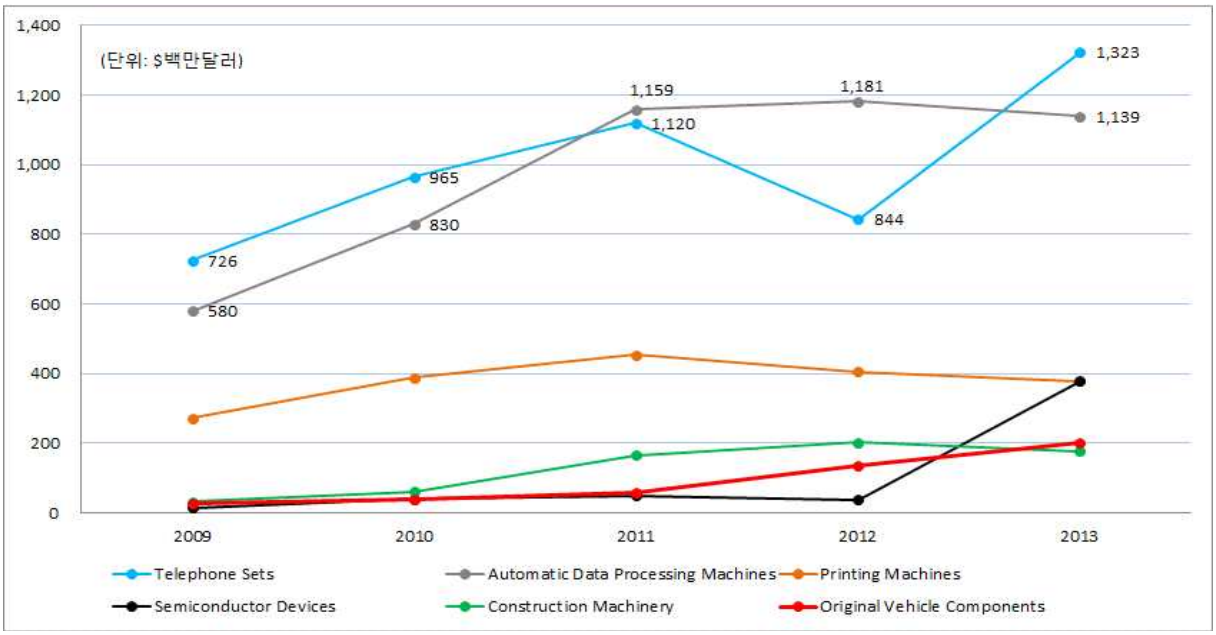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수출신고금액 기준으로 World Trade Atlas 수치와 차이 있음)

□ 중국의 대남아공 수출품목은 남아공 산업변화에 부응하며 다변화 추세

○ 남아공의 중국으로부터의 상위 5개 수입물품은 전화기세트(8517), 자동데이터처리기계(8471), 인쇄기계(8443), 건설기계(8429)로, 중국은 남아공의 통신산업 성장, 인프라 투자 확대, 공정자동화 등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품목 위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 해 오고 있음.

- 특이한 점은, 반도체기기 수출이 2012년 $38백만 달러에서 2013년 379백만 달러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original vehicle component(9801, 남아공 code)도 2009년 $28백만 달러에서 2013년 $203백만 달러로 7배 이상 상승함.

[남아공의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 수입 현황 (2009년-2013년)]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남아공의 수입신고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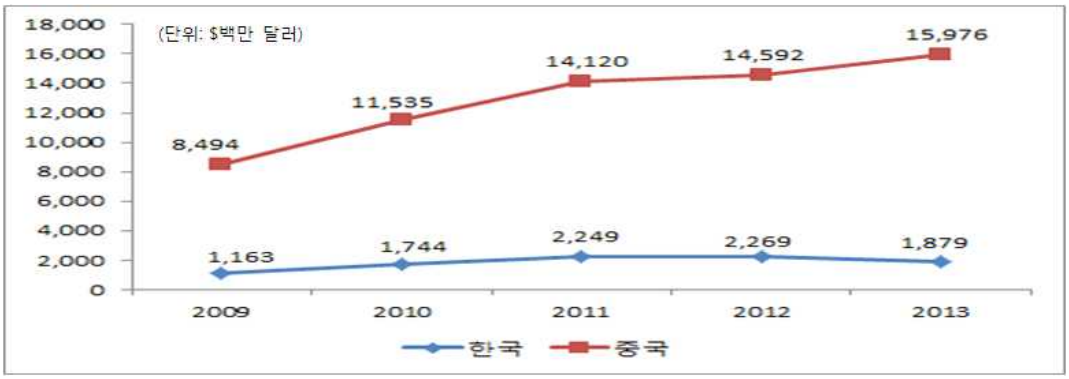
품목명	HS Code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Telephone Sets	8517	726	965	1,120	844	1,323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8471	580	830	1,159	1,181	1,139
Printing Machines	8443	272	388	455	405	379
Semiconductor Devices	8541	16	40	50	38	379
Footwear	6402	217	296	365	359	311
Monitors and Projectors	8528	179	259	263	174	181
Construction Machinery	8429	32	61	166	202	177
Original Vehicle Components	9801	28	38	57	136	203

□ 남아공의 한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 남아공의 중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은 2009년 $8,494백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15,976백만 달러를 기록함.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은 2009년 $1,163백만 달러에서 2012년까지 소폭 증가했으나, 2013년 $1,879백만 달러로 감소함*.

*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2013년 한국의 대남아공 총수출금액은 $2,698백만 달러임

[남아공의 한국 VS 중국으로부터의 총수입규모 (2009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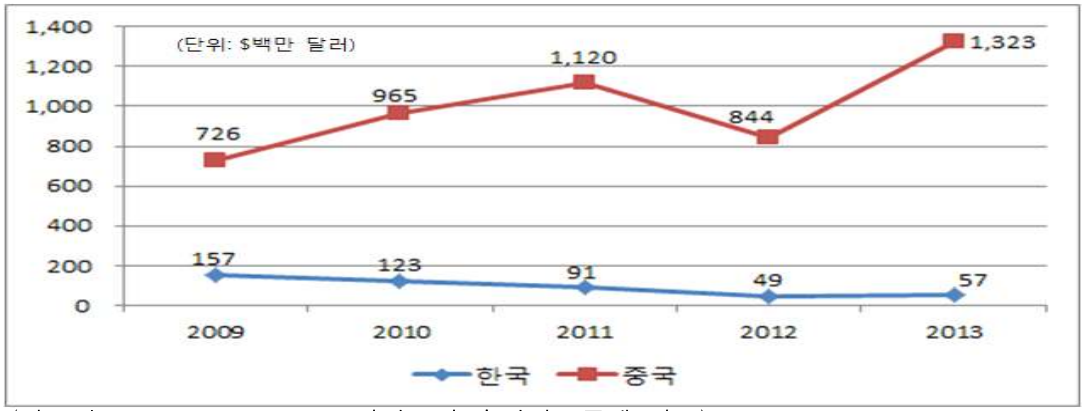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남아공의 수입신고금액 기준)

※ 중국의 전화기세트 수출은 증가한 반면, 한국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

○ 남아공 통신산업 성장으로 중국으로부터 전화기세트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중국으로부터의 전화기세트 수입은 2009년 $726백만 달러에서 2013년 $1,323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9년 $157백만 달러에서 2013년 $57백만 달러로 1/3 수준으로 감소됨.

[남아공의 한국 VS 중국 으로부터의 전화기세트 수입 (2009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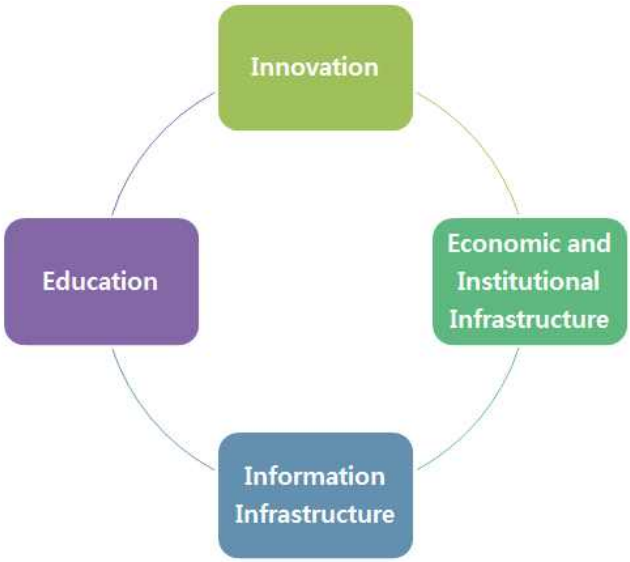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남아공의 수입신고금액 기준)

2. 주마 대통령 집권 2기의 남아공 전망

□ 주마 대통령 집권 2기, 남아공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 남아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은, 정부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예산의 투명함을 보장하며, 일자리 창출과 고급인력 배출 증가, 효율성 증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결과로 귀결시켜야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지식기반경제의 선순환]



○ 주마대통령 집권 2기에서 높은 실업률, 공공교육 질적 저하, 젊은층 내 비숙련 노동인력 증가, 자원집약적 산업 중심 경제구조, 사회 불평등 심화, 주거비 상승, 영업환경 악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남아공 제조업은 서비스산업 확대로 비중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나, 고부가가치화, 성장 파급효과 확대 등으로 남아공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남아공 정부가 내세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전환, 부가가치 상승,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내수시장 확대 등의 정책 실행 성공여부가 남아공 제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임.

○ 생산성 측면에서는 물적・인적 자본의 질적 개선, 기술발전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임. 기술진보 및 혁신의 배경이 되는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R&D 투자 확대,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 금융서비스 등 경제 하부 구조가 발전되어야 만이 남아공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남아공은 현재 구조전환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혁신적 발전이 없을 경우 한계효과 감소로 생산성이 하락하게 될 것임.

○ 남아공이 지식기반경제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히 제조업에 있어 저부가가치 영역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최근 섬유・의류 등 저기술 제조업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로 도약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임. 한편, 남아공 및 아프리카 역내시장 초기진입이 어려운 관계로, 선진기업의 남아공 현지기업 M&A가 증가하고 있어, 기술유입 및 기술이전이 용이한 여건임.

□ 아프리카 역내 주도권 강화

○ 남아공 정부는 산업무역부 및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가 발표한 개발계획에 아프리카 역내 선두국가 위치를 유지 및 강화한다는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킴. 산업무역부는 산업발전정책을 통해 남아공 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과학기술부는 기후변화 과학기술과 우주과학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에 공동대응하고 역내 선두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을 포함시킴.

○ 나이지리아가 최근 GDP 산정방식을 바꾼 결과,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통계자체에 신뢰성이 낮고, 남아공의 제조업・금융업・통신업・농업・과학기술・외교력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 역내 선두국가 위치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임.

3.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남아공 산업별 변화에 대응

○ 정보통신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 공정과정의 선진화,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조를 목표로 투자확대 계획인 바, 산업변화에 따른 수출품목을 신중히 선정해야 함.

○ 남아공 정부가 '녹색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원 다변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 증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설비·기기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의 수출활로를 적극 개척해야 할 것임. 또한 '녹색교통물류' 확대를 위해 철도에 대규모 투자가 계획된 바, 프로젝트 진출 및 철도차량·설비부품 진출도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및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부 단독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보다는, 민자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및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원조달 방안을 선결한 후 진출해야 함.

□ 아프리카 역내 유통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남아공

○ 남아공에 있는 대형 유통망기업 5개사*가 아프리카 역내 전체 유통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음. 이들 대형 유통망기업은 세계 유통망 순위에 94위부터 234위에 속함.

- (남아공) Shoprite(94위), Steinhoff(125위), Pick 'n Pay(137위), SPAR(172위), Woolworths(234위)
- (한국) 롯데쇼핑(43위), 이마트(89위), 이랜드(205위), GS샵(233위)

○ 남아공 대형유통망 기업에 납품하여 아프리카 역내 전체에 공급되는 전략적 진출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

* 국별로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할 경우, 수출하려는 품목을 취급하는 에이전트가 국가별로 한 개 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에이전트가 우리기업끼리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격을 깎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산업협력’,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우회 진출 지원

○ 여타의 아프리카 국가로의 진출과 마찬가지로, 남아공 진출에 있어서도 우리기업 진출을 위해 정부의 우회지원이 필요함. 남아공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 녹색경제 정책, 과학기술개발에 있어 한국은 모든 부분에 있어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간 협력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남아공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진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임.

- (산업정책) 한국은 사회・지식 인프라, 교육, 고급인력 양성, ICT 활용,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2000년대부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경험 보유

- (녹색경제) 한국은 개도국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 국가녹색성장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환경・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매우 높고, 관련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이 매우 유망함. 또한 환경정책 및 에너지효율・절감 정책은 전세계 최고 수준임.

- (혁신정책) 한국은 2014년 종합혁신지수((Innovation Union Scoreboard)에서 전세계 1위를 차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과학기술 및 성공적인 혁신사례 적극 공유 필요

2014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1	경제제재 완화대비, 對이란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4.1
14-002	2014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1
14-003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1편 -	2014.3
14-004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2편 -	2014.3
14-005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3편 -	2014.3
14-006	한미 FTA 발효 2년, 대미 수출성과 분석	2014.3
14-007	한-캐나다 FTA 15대 수출유망품목	2014.3
14-008	2014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3
14-009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2014.4
14-010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1	2014.4
14-011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2	2014.4
14-012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3	2014.4
14-013	한-터키 FTA 1주년 효과분석 및 시사점	2014.4
14-014	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 활용전략	2014.4
14-015	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4.5
14-016	태국 정정불안에 따른 영향 및 전망	2014.5
14-017	일본기업의 최근 해외투자진출동향과 시사점	2014.6
14-018	우크라이나 대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14.6
14-019	변화기의 쿠바, 우리기업 대응전략	2014.6
14-020	남아공 대선과 산업경제 분석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시사점	2014.6
14-021	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	2014.6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1	중국을 읽는 50가지 키워드	2014.1
14-002	후베이성 자동차부품 산업현황 및 진출전략	2014.2
14-003	[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 2014 중국 경제 전망	2014.2

14-004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4.3
14-005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환경 변화: 분야별·업종별 영향과 우리의 대응	2014.4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3	2013 KOTRA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	2014.2
14-004	2014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4.2
14-005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환경분야 Q&A	2014.4
14-006	2014 중국 개정 상표법 신구대조표	2014.4
14-008	201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4.5
14-009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3	2014.5
14-010	EU기금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 수주방안	2014.5
14-011	SEOUL FOOD 2014 디렉토리 책자	2014.5
14-012	UAE 매립지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4.5
14-013	2014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4.5
14-014	2014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4.5
14-015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2014.5
14-016	러시아 에너지시스템 시장 현황	2014.5
14-017	201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4.6
14-018	Global Green Hub Korea 2014 결과보고서	2014.6

작성
❖ 신흥시장팀 **이미경** 전문위원

대선 결과 정리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대리

작성 지원
❖ 신흥시장팀 **황인서** 인턴사원

Global Market Report 14-020

남아공 대선과 산업 · 경제 분석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시사점

-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로의 전환기 남아공 -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4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